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중간보고

들어가는 글	- 모야!!! 따로 또 같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백영숙 이사장)	5
--------	---------------------------------------------	---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모야?

1)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탄생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만드는 사람들 -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탄생 스토리	8
2)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모습	-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이름 -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구성하는 역할 -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재료와 도구 -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작업실	11
3)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란?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란? - 작은도서관 모야의 첫 시작 -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23

2.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의 탄생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개요	28
--------------------------	-------------------------------------------------------	----

2) 작은도서관 선정과정	- 사업공모 및 작은도서관 선정 - 모야를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31
---------------	---------------------------------------	----

3) 작은도서관 10개소의 작업실 조성 과정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조성과정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작업실(릴리쿰 까나리)	41
--------------------------	----------------------------------------------------------------	----

3. 함께 만드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1) 함께 만드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워크숍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설명회 - 잘 시작해 보자고! 워크숍(KICK OFF 워크숍)	52
2) 함께 만드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살롱	- 살롱#1 임팩트 리서치 공유회 - 살롱#2 손에 손잡고 - 살롱#3 오른손의 창작하는 자신감을 위한 워크숍	56
3) 함께 만드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모니터링	- 2021년 상반기 현장모니터링 - 2021년 1:1 줌 모니터링 - 2021년 하반기 현장모니터링	68
4) 사업 추진단 회의 및 어린이 작업실 모야 플랫폼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 회의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플랫폼	77

4.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선 어떤 일이?

1) 작은도서관 내부의 풍경	82
– 작은도서관의 작은손	
– 작은도서관의 오른손	
– 작은도서관의 뒷집손	
–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2) 모야로 살아남기, 살아가기	86
– 코로나 상황에서의 작업실 운영	
– 작은손 작업에 불 붙이기	
– 뒷집손과 소통하기	

5. 중반까지 달려온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작은도서관들의 생각	94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중간평가 설문조사	
– 작은도서관이 말하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의미	
2)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사업 추진 단체들의 생각	103
– ‘도서관’이 ‘어린이작업실 모야’를 만나면 (도서문화재단 씨앗 조현정 팀장)	
– 작은도서관 모야의 의미 (씨프프로그램 신혜미 매니저)	
3)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생각	111
– 사업이 아닌 일상으로의 전환((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별첨자료

1. 어린이 작업실 모야 채널	114
2.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운영 도서관	

모야!! 따로 또 같이!!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작업실 ‘모야’를 시도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그동안 아이들의 창작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관보다 아이들의 창작활동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야를 시작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맞도록 창작작업공간을 설치하고, 한시적이지만 인건비나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창작활동 과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활동들이 책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작은도서관에서의 모야였습니다.

굳이 책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작은도서관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작은도서관이 다양한 책문화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엮어 모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 오던 공모사업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고,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협회의 역할을 정립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현장방문과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들이 중단되었지만 끊임없이 소통 방법을 찾아야 했고 가치를 공유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선정된 작은도서관들도 생각보다 길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멈칫멈칫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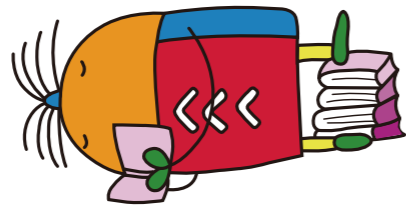
각각의 작은도서관에서의 모야는 각 도서관의 형태와 역할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활동을 돕는 인력의 수도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만드는 것도 결과도 달랐지만 꼭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야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선언했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활동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모야를 진행한지 1년이 넘는 도서관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모야를 통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야가 작은도서관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결합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실험이지만 이번 정리를 통해 협회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목적과 방향을 살펴보는데 이번 정리의 목적을 두려합니다.

재원을 지원해주신 (재)도서문화재단 씨앗과, 모야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릴리쿰과 C-program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책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을 기대하며 모야의 후반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모야?**

1.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탄생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만드는 사람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씨프로그래’, ‘(주)릴리쿰’,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작은도서관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확산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씨프로그래*은 어린이작업실 모야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합니다.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에 모야를 조성하고 확산 방향을 기획합니다. 또한 전체 어린이작업실의 작용을 보며 어린이작업실 모야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콘텐츠와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합니다.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은 전체 어린이 작업실 모야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어린이도서관 및 청소년 공간의 확산과 운영을 지원 및 관리합니다.

(주)릴리쿰은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딩, 운영 매뉴얼 개발, 콘텐츠 개발과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가구 디자인, 시공 등 전반을 담당합니다.

위의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은 어린이들이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공간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 가까이에 있고 어린이들을 환대하는 어른들이 있는 작은도서관에 어린이들이 무엇이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씨프로그래 모야팀은 도서관문화재단 씨앗에 합류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reliquum._____

전체 어린이 작업실 모야
공간 & 콘텐츠 개발

C_program

전체 어린이작업실 모야
프로젝트 총괄 기획

도서관문화재단 씨앗

어린이 작업실 모야
기금 조성 & 지원

1세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형 모야의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수행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탄생 스토리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탄생 스토리는 씨프로그래(계정:seesaw)의 브런치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비밀] 매거진의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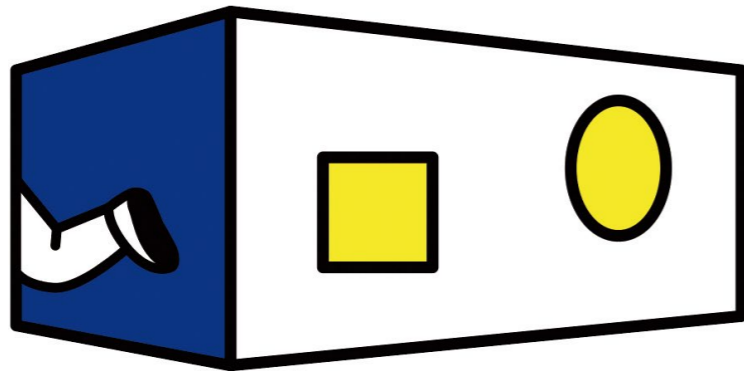
네이버 브런치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비밀] 매거진

씨프로그래는 2014년부터 꾸준히 미술관, 박물관에 어린이들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해오면서 어린이들에게 집과 학교가 아닌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동네 놀이터에서의 경험과는 다른 경험이며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2017년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 바로 앞에 어린이들이 무엇이든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업실이 생기면서 씨프로그래의 이문238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문238의 이름처럼 작업실 속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하나의 문이 아닌 238가지의 다양한 문을 탐색하고 마음껏 실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씨프로그래프는 2년간 이문238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작업은 곧 어린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이며 어린이들 각자의 속도로 자신의 일상을 채울 싹과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프로그래프는 이문238을 운영해오면서 경험한 어린이들의 다양한 변화와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낸 환경 요소들을 잘 정리해서 더 많은 어린이에게 확산할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늘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작업실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함께 만들어 갈 좋은 운영자가 있는 곳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프로그래프는 거듭 어린이들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누구든 갈 수 있고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열려있는 곳, 많은 어른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 언제나 어린이들을 환대해주는 곳, 그곳이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과 이야기’도 어린이들의 작업의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 속 작업실’에 대한 기획이 시작되었고 이를 실체화 하는 과정에서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릴리쿰,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

© 2020. 씨프로그래프, (주)릴리쿰,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모야?

2.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모습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모습의 내용은 씨프로그래프와 릴리쿰이 작성하여 엮은 씨프로그래프(계정 : seesaw)의 브런치 매거진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내용을 편집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챗터에서 사용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릴리쿰, 씨프로그래프, 도서문화재단 씨앗에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이름

모야 프로젝트의 공간 디자인 및 콘텐츠를 개발한 릴리쿰은 연남동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릴리쿰 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릴리쿰은 ‘만들기’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취하여 환경과 일상을 복원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실험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자 활동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릴리쿰 『손의 모험』 中

‘만들기가 사라진 시대에서 진정한 자신은 누구인지 답을 구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기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생산할 능력이 있다면, 사회에서 낙오하거나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은 곧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된다.’

릴리쿰은 마을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를 통한 성장과 사회화의 기회가 줄어들고 놀이가 사적 소비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복원을 사회적 아젠다로 형성하기 위한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릴리쿰이 하자센터와 함께 진행한 공공 놀이터 프로젝트가 그 실험 중 하나입니다. 놀이터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안 놀이 자체의 즐거움에서 놀이 환경에 대한 생각까지 넓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작업실 디자인을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이 자율적으로 만들면서 놀고 놀면서 만들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릴리쿰이 아이디어를 낸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이름은 어린이가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을 맛닥뜨렸을 때 감탄사로 내뱉는 ‘뭘야?’에서 따왔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모험이라 봤고 곧, ‘작은손이 모험을 시작하는 곳’이라는 슬로건이 탄생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구성하는 역할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 작은손 : 모야에서 작업하는 어린이를 칭하는 말입니다.
- 뒷집손 : 작은손의 보호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 오른손 :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작은손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어른을 칭하는 말입니다.



작은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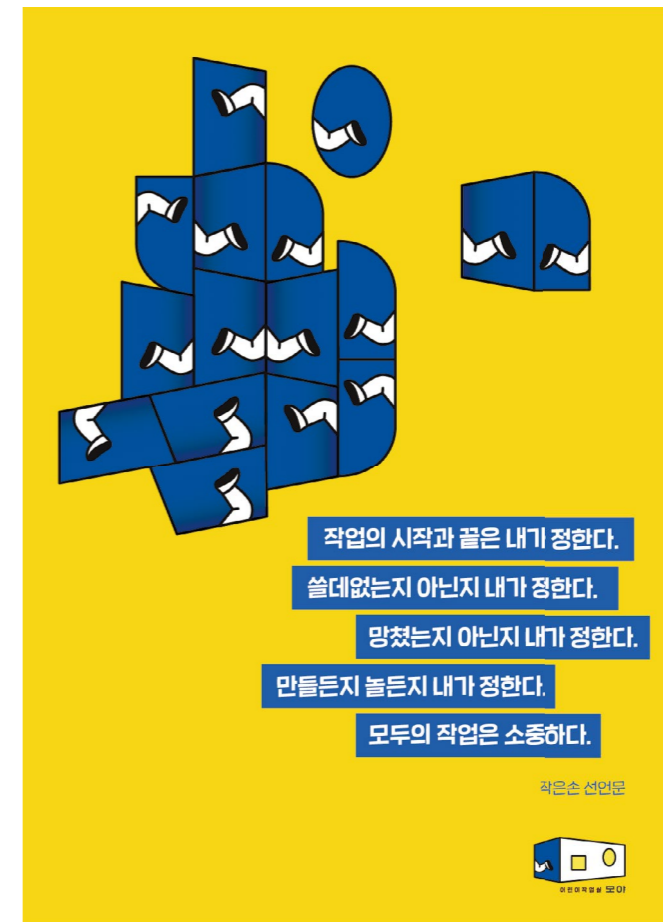
작은손은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주인공입니다. 모야를 찾는 모든 어린이에게 작은손이 될 기회는 열려있지만, 모두가 ‘작은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손이 되기 위해선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어떤 작업을 할지 생각하고 스스로 진행할 수 있을 것.

모야에서 하는 모든 작업과 그 과정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이든 혼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도구를 능숙하게 잘 다룬다는 뜻이 아닌, 무엇을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힘으로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손 약속’을 이해하고 동의할 것.


작은손 약속은 작은손들이 모야 작업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릴리쿰이 작은손



작은손 약속

약속을 만들 때 과연 어린이들에게 규칙이 필요한지에서부터 긴 토론을 벌인 결과, 자율과 관계·협력·책임·안전·제작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약속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손 약속을 읽고 동의를 표하는 사인을 직접함으로써 모야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에 동의하게 됩니다.

뒷집손은 모야 작업실 안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작은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릴리쿰은 팝업 놀이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실패의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시도하고 다양한 관계를



모야 안내문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어린 이 작업실 모야입니다.

모야는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그걸 바꾸는 도구가 있고, 친구들이 있지요.
이곳은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도록 어른이 없는 공간,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실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보호자님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보호자님이 아이의 작업과 작업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세계는 좁아질 수도,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경계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식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아이에게 결과물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곳은 작품을 만드는 곳이 아닌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재료를 탐색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상상을 구현하는 과정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보다는 작업 그 자체를 존중해주시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무엇을 만들었는지, 몇 개를 만들었는지를 묻기보다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작업 과정은 어땠는지에 대한 말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작업실 내 안전을 살피는 '오른손'이 있지만 그런데도 약, 하는 사이에 아이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이가 위험을 인식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해주세요.
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한 도구는 '오른손'의 관리하에서만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급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각각의 속도를 존중해주세요.

초행길은 항상 그 실제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고민하고, 탐색하고, 판단을 의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작업이 느리고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너무 성급하게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배우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이 있음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이 작업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업의 방식에는 규칙이 없지만, 아이가 작업을 통해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꼭 충족되어야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성입니다. 아이에게 작업을 강요하지 마시고, 반대로 언제까지 끝낼 것을 요구하지도 말아 주세요.
아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도록 지지해주세요.

보호자 안내문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선 모야의 공간에 보호자가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뒷집손이 모야의 세 역할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유는 작업실 안에 뒷집손의 출입을 막는 것만으로 보호자의 영향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손이 즐겁게 손을 움직이며 만들어 온 작업물에 보호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작은손의 마음이 부풀기도,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릴리쿰은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찾는 작은손의 보호자에게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설명하고 작은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문은 작은손을 통해서 보호자에게 전달되거나, 도서관 이용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모야에 있는 유일한 어른입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는 작은손들의 작업을 위해 비치된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 중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채로 쓰면 쓰기 어렵거나 위험할 수 있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들은 모야에서 어린이들의 올바른 도구 사용을 안내하고 작은손 가까이에서 안전을 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실에 있는 모든 재료와 도구를 관리하고 어린이들의 작업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작업을 촉진 시킬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오른손

오른손은 모야에 있는 유일한 어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모야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인 작업실이었다면 그 권위를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모야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목표를 실패의 두려움에 막히지 않고 스스로 몇 번이고 시도할 수 있도록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릴리쿰은 오른손이 가지각색의 작은손을 대할 때 지킬 최소한의 원칙 4가지를 세웠습니다.

1. 작은손의 '나다움'을 존중한다.
2. 동등한 작업자로 대한다.
3. 각자의 속도를 존중한다.
4. 제작에 정답이 없음을 명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른손은 작은손과 상호작용하고 작은손과 각 작업 · 공간 · 다른 작은손의 연결, 보호자와의 분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재료와 도구

릴리쿰은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 들어갈 재료에 대해 고민하며 '재료의 한정성'에 주목했습니다. 어린이의 만들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재료는 활용성의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릴리쿰은 모야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이 기존에 자주 접했던 재료를 기반으로 어린이들 각자의 개성에 맞는 만들기를 즐길 수 있길 바랐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구성할 재료를 다양한 확장성이 있는 재료와 채집재료, 재활용재료, 이상한 재료로 구분했습니다.

- **채집 재료** : 어린이들이 자연과 일상에서 직접 채집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솔방울과 낙엽 같은 계절성 있는 재료부터 단추, 나사, 끈 같은 일상에서 채집할 수 있는 재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재활용 재료** : 일상생활에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해당합니다. 작은손들이 재활용성을 고려해보고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재활용 재료를 수집하고 재료비에 비치할 때는 바로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깨끗이 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상한 재료** : 매번 모아서 비축해두기에는 부피가 크거나 그 쓰임이 한정되어 있지만

작은손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재료를 말합니다. 고장 난 기계, 안 쓰는 장난감, 지역에 있는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의 부산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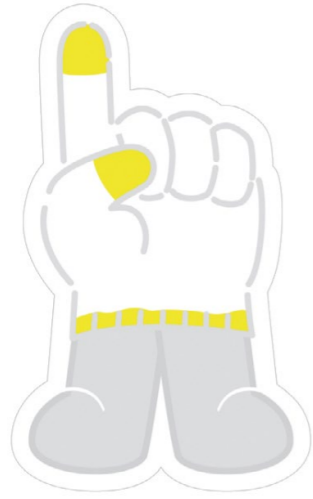
요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들기 키트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만들기 키트는 어린이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재료를 경험할 수 있고 난이도 있는 만들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결과물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다른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릴리쿰은 모야를 구성할 재료들은 목적성에 한계를 두지 않도록 즉, 한가지 결과물만을 위한 재료가 아닌 작은손이 원하는 다른 어떤 형태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 구성을 '원재료화' 했습니다.

물론 재료바에 있는 재료 말고도 어린이들이 작업하면서 필요한 재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작은손 게시판에 원하는 재료와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작은손이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게시판에서 보고 그 재료가 잘 활용될 수 있는지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또는 오른손들이 작은손의 작업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작은손의 작업이 다음 단계의 확장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재료가 있다면 논의하여 시범적으로 놔두면서 작은손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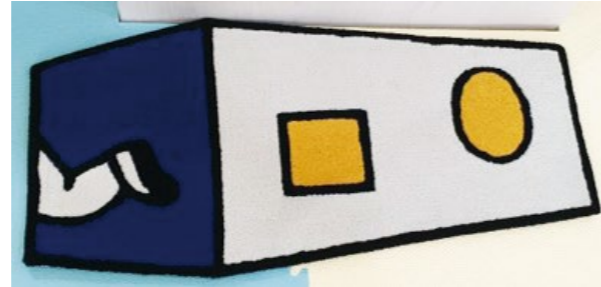
릴리쿰은 도구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정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양한 재료만큼 다양한 도구를 갖추고 싶지만 동시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했고, 너무 안전에 치우치면 도구의 종류가 한정되고 다양한 작업에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못해 작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어린이마다 성장발육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증진하면서 안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점이 어디일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어린이에게 적합한 도구를 찾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작업을 이어가고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자신의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세워 줄톱, 망치, 드라이버, 글루건 등의 다양한 도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작업실

어린이 작업실 공간 구성에 있어 가장 집중했던 요소는 '탐구, 창작, 몰입'이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뉘집니다. 작업하는 작업 공간과 작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시그니처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있는 작업실인 만큼 어린이들의 작업만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이 같은 도서관 내에 있는 공간이지만 어린이들이 모야 작업실로 입장할 때만큼은 어린이들만의 공간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시그니처 공간은 모야와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구별하고 어린이들끼리 생각을 공유하며 도서관과 작업실을 잇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작업자로서 전환하는 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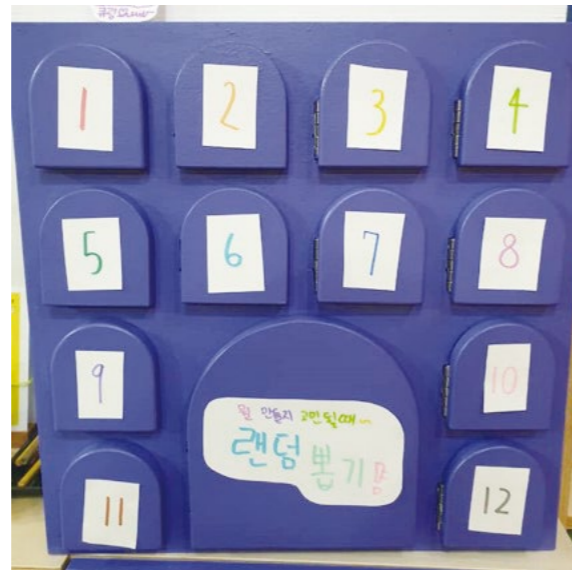
수수께끼 북마크



모야 발판



모야 고보조명



모야 수수께끼 상자

수수께끼 북마크는 책 사이사이에 작업에 영감을 주는 질문 등을 적어서 붙여두면,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책을 읽다가 작업으로 전환하거나 작업을 하던 친구들도 영감을 받아서 다른 작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모야 발판과 고보조명은 도서관 내에 모야 작업실의 공간을 구분하고, 이 공간을 통과하며 어린이들의 학생, 가족, 이용자의 정체성에서 독립적인 작업자의 정체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수수께끼 상자는 작업실 안팎에 위치하여 작은손이 자신만의 만들기 레시피나 다른 작은손에게 건네는 질문들을 넣어 도서관에서 작업실로 전환되도록, 작은손과 작은손이 연결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어린이를 작은손으로 전환하는 '시그니처 공간'의 장치들처럼 작은손들이 직접 작업하는 공간을 채우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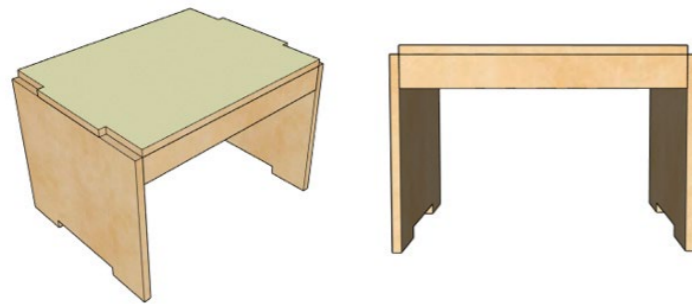
모야 재료바는 재료와 관찰 도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모야 재료바는 모듈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의 모양과 크기에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작은손이 작업에 몰두하다가 다른 재료나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모야의 재료바가 한눈에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이 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릴리쿰은 앞이 뚫려있는 형태의 형태로 디자인된 재료바에 반투명한 재료를 채웠습니다. 또한, 재료에 따라 작은 재료를 보관하는 재료함, 실을 보관하는 문에 구멍이 뚫린 재료바, 큰 종이를 보관하는 가로로 긴 재료바 등으로 재료의 크기와 이용하는 특성에 맞게 작업 공간의 가구를 디자인했습니다.

모야 파티션은 혼합된 기능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공간 분리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타공 게시판을 설치해 공지, 게시, 공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아래에는 큰 재료들을 수납하거나 어린이들이 쓰고 남은 재료 중 재활용 가능한 재료들을 보관하는 숙련자의 상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모듈형 재료바와 파티션

작은손 책상은 작은손이 직접 작업을 하는 책상입니다. 책상 양 끝에는 홈이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작은손 책상은 한쪽에 쌓아놓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작은손 책상의 높이와 크기는 8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더 큰 작업 공간이 필요하거나 여러 명의 작은손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 작은손 책상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손 책상



도서관 공간에 따라 배치한 재료바 모습

안전 테이블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사용해야 하는 도구들이 모여있는 도구 테이블입니다.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 작은손들은 혼자서도 안전하게 사용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오른손의 관찰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른손이 있는 공간과 가장 가깝게 위치합니다. 도서관 활동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 오른손의 특성에 맞게 오른손이 있는 공간과 가까이 옮길 수 있도록 도구 테이블에는 바퀴와 고정핀이 달려있습니다.



도구테이블

작업일지는 어린이들이 작업을 끝내고 그날의 작업에 대해서 그림, 글 등으로 남기는 기록 장치입니다. 영수증 프린터로 제작되어 버튼을 누르면 작업일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작은손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업일지를 기록하며 그날의 작업을 돌아보고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작업일지



작은손 깃발

작은손 깃발은 모아 작업실이 한정적인 작은 도서관의 공간 특성상, 모아 작업실 구역 외에 다른 도서관의 공간에서 작업하게 될 때, 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모아?

3.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작은도서관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은 작은도서관 속에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과 작업 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작은도서관의 형태를 실험해보는 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작업실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과 함께 소통하고 의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같이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에 맞는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다양한 도서관들의 공간에 적합한 작업실을 조성하고, 작업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다양한 콘텐츠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협회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역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모습을 새롭게 실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주어지는 경험이 아닌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실험이자,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작은도서관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어린이 작업실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동네에서 어린이들과 또 이웃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온 작은도서관에게 작업실이라는 또 다른 시도가 더해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다양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협회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졌던 다양한 기대와 고민, 그럼에도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모야의

첫 시작

–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1990년대 말,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시기에 소리소문도 없이 생겨난 작은도서관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유아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연필을 불문하고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동아리, 어떤 재료든 자르고 만들고 놀았던 노작활동, 시민이 만드는 책 축제 등 그동안의 도서관 문화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이 작은도서관 운동이라는 흐름 안에서 만들어지고 도서관 전반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모인 사단법인입니다. 협회 역시 현장의 활동을 돕기 위한 방향성을 이어왔습니다. 특화도서관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특징적 운영을 지원하기도 했고, 서로가 서로를 벤치마킹하며 우리만의 콘텐츠를 확대하고 생산해나가는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이용자와 가장 밀접한 서비스를 하는 곳이자, 살아있는 독서문화가 유연하게 이뤄지는 곳입니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고민은 그래서 언제나 작은도서관의 화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활기차게 바꾸어줄 새로운,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누리는 유연한 일상의 공존이 작은도서관의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은 여전히 그리고 더 어려워졌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의지도 힘도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즈음, 협회에 제안이 왔습니다. ‘새로운 작업실’ 운영을 작은도서관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씨프로그래, 씨앗과 함께 한 첫 번째 미팅에서 본 작업실의 일상은 작은도서관의 일상과 비슷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 첫 시작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작업실을 좀 더 확대해보자는 제안이 오자, 반가웠지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유의미할 것인가?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작업은 책과
무조건 연결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어린이작업실이라는 콘텐츠가 작은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독서문화로서 유의미한가?
협회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 중 하나일 뿐 아닌가?”

치열한 내부 논의 끝에 협회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진행해온 일상의 노작활동이 작은도서관 콘텐츠로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고 새로운 단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가 협회 중앙만이 아닌 작은도서관들의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작은도서관 콘텐츠에 대한 고민,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운영자와 활동가의 마인드도 나누고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의 탄생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 사업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 사업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 사업은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운영할 10개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하여 작업실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24개월 동안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와 작은도서관을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 동안 모야 사업 추진단은 함께 작업실을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합니다. 또한 작업실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워크숍 및 살롱의 세부적인 방향과 콘텐츠 기획은, 사업 추진단이 함께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업실 운영 단계에 맞게 유동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0개 작은도서관에 어린이 작업실 모야 조성, 2번의 워크숍, 3번의 살롱, 3번의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실행되었고 살롱은 개별 작은도서관들의 어린이 작업실 운영을 위해 오른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은 개별 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고민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시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사업 개요

- 1) **사업명**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2) **사업목표** : 작은도서관에 어린이가 주체적, 일상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작은도서관과 작업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독서문화 공간을 실험한다.
- 3) **사업대상**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 사업에 선정된 전국 10개 작은도서관

4) 사업기금 : 540,000,000원(27개월)

5) 도서관 지원 내용 :

- 월 운영비 1,000,000원 지원(총 24회차 지급) (인건비, 재료비 등 포함)
- 개별 도서관 맞춤형 어린이 작업실 모아 공간 조성
- 운영 매뉴얼 워크숍 및 작은손 워크숍 지원
- 작업실 운영 단계에 맞는 워크숍 및 살롱 진행
- 어린이 작업실 콘텐츠 및 활용 자료 지원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 사업 공고 일부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한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의
탄생

2. 작은도서관 10개소의 선정과정

사업 공모 및 작은도서관 선정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0년 8월 12일(수) ~ 8월 25일(화) (14일간)
- 공고 방법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 도서관 수 : 총 24곳
- 신청 지역 :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경상, 광주, 대구, 인천, 충청, 호남, 울산

2) 1차 심사

- 심사일 : 2020년 8월 27일(목)
- 심사내용 : 전체 신청서 검토, 1차 도서관 선정, 실사 도서관 선정, 2차 심사 일정 논의
- 심사기준 : 운영인력의 적합성, 공간의 적절성, 이용자 환경, 운영의 안정성, 사업이해도
- 심사결과 : 24개 도서관 중 11개 도서관 1차 선발, 선발된 11개 도서관 중 4개 도서관 실사 결정.

3) 2차 심사

- 심사일 : 2020년 8월 27일(목)
- 심사내용 : 실사 보고 및 최종 심사 도서관 선정
- 심사결과 : 1차 심사 11개 도서관 중 최종심사 후보 10개 도서관 선정

5) 3차 심사

- 심사일 : 2020년 9월 9일(수)
- 심사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회의실
- 심사내용 : 9개 최종 도서관 선정, 사업 진행 차수별 도서관 분배, 사업설명회 일정 논의
- 심사결과 : 9개 최종 도서관 선정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재)도서관문화재단씨앗과 직접 협약하여 7월 시공 진행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 어린이도서관에 조성이 추진되던 시기에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작은도서관에도 조성해보는 시도를 해보고자 첫 실험으로 조성된 도서관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해 있으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은행나무 바로 뒤에는 탐동초등학교가 있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동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주택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참새 방앗간 들리듯이 도서관을 편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많은 수의 활동가가 있는 만큼, 여러 명의 활동가가 오른손 규칙을 익히고 오른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른손들끼리 유동적으로 긴밀히 의논하며 다양한 모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그나라
어린이도서관

그나라어린이도서관은 대전광역시 북구 동청동에 위치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몰려있는 북구에 위치한 만큼 도서관을 중심으로 함지초등학교, 대구북구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동평초등학교가 있고 다양한 학원과 큰 아파트 단지들이 준비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과 모야를 찾고 있습니다. 집, 학원, 학교 등 어린이들의 생활과 가까이 있는 만큼 더 자주 올 수 있는 모야 작업실입니다.



대구광역시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대전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위치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마을도서관 햇빛따라는 도서관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설립 후 10년 동안 마을도서관 햇빛따라의 영향으로 구립도서관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커뮤니티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햇빛따라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있을 공간과 놀이감이 부족한 곳에서 어린이들의 일상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생겨서 모야에서 모여서 작업도 하고 함께 놀이터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모야 작업실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여우네
도서관

여우네도서관은 충청남도 서천시 마서면에 위치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가을에 여우네도서관을 방문하는 길은 황금빛으로 가득한데, 그만큼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 학교와 학원이 있지만, 스쿨버스도 다니고 주말에는 서천시 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워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작업물을 볼 수 있는 모야 작업실입니다.



충남 서천시 여우네도서관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람동에 위치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아파트 작은도서관입니다. 세종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이 위치한 10단지 아파트만해도 1900세대가 넘는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이지만 아파트 주민 외에 세종시민들에게도 오픈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오픈한 세종시립도서관 모야와 함께 세종시 작은손들의 다양한 작업물을 볼 수 있는 모야 작업실입니다.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는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에 위치해 2010년부터 운영해온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는 도서관 바로 뒤 초등학교가 있고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마을학교도 운영하여 항상 어린이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모야 작업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사는 고양이 두 마리도 어린이들의 작업에 많은 영감을 주며 다양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모야 작업실입니다.



울산광역시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세종특별자치시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는 2020년도에 지금의 자리로 이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유행 시기와 겹쳐 많은 동네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서관 건너편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 언제든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야 작업실의 크기는 아담하지만 벌써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해 다양한 작업물을 만든 걸 볼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서울 강동구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웃는책

작은도서관 웃는책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웃는책은 강동구의 천일어린이 공원 안에 있어 어린이들이 놀이터와 도서관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작업물을 만들고 나서 도서관 바로 앞 공원에서 친구들과 작업물을 테스트해보고 신나게 가지고 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작업물이 업그레이드되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업실입니다.



서울 강동구 작은도서관 웃는책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위치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아파트 작은도서관입니다.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은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들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바로 앞 넓은 야외 공간이 있어 작업한 것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모야 작업실이 조성될 환경에 맞춰서 입식으로 된 책상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기 성남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는 모야를 새로운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 받는 곳,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문화 공간, 책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뒷집손들에게 모야의 방향성을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밀집된 곳에 도서관이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일상에 가까운 작업실입니다.



서울 광진구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마하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지금까지 소개한 도서관은 모두 작은도서관입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작은 도서관형 작업실과 함께 어린이도서관형 작업실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전라북도 진주시에 위치한 전주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도 처음에는 어린이도서관형으로 선정되어 작업실이 조성되었으나, 도서관 운영방식이 작은도서관과 가깝고 협회의 회원 도서관이기 때문에 2021년도 8월을 기준으로 위의 10개 작은도서관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진주시 최초의 사립공공도서관으로 지금까지 진주 지역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아지트가 되어온 도서관입니다.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작업실에 들어서면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한쪽 벽면이 가득 채워져있습니다. 이미 어린이들이 만든 다양한 작업물들이 전시대를 알차게 채우고 있는 작업실입니다.



경남 진주시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도서관

전주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위치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온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전주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무엇보다 어린이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이책을 수서하는 과정에서도 어린이도서관 관련 추천목록과 문학수상작을 참고하는 등 많은 정성을 드리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주변에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 송천초등학교등이 있어 주말이면 도서관이 가득 차곤 합니다. 현재(2021년 12월)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2022년) 1월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조성 중)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의
탄생

3. 작은도서관 10개소의 조성과정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조성과정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조성 과정은 ‘전체적인 조성 단계’와 ‘개별 작은도서관 상황’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조성 단계는 [현장실측-공간배치 디자인 회의-작업실 시공-현장감리 및 운영자 매뉴얼 워크숍-베타오픈데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간배치 디자인과 도서관 재료 보유 현황 확인 및 작업실 시공은 개별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상황을 파악하여 맞춤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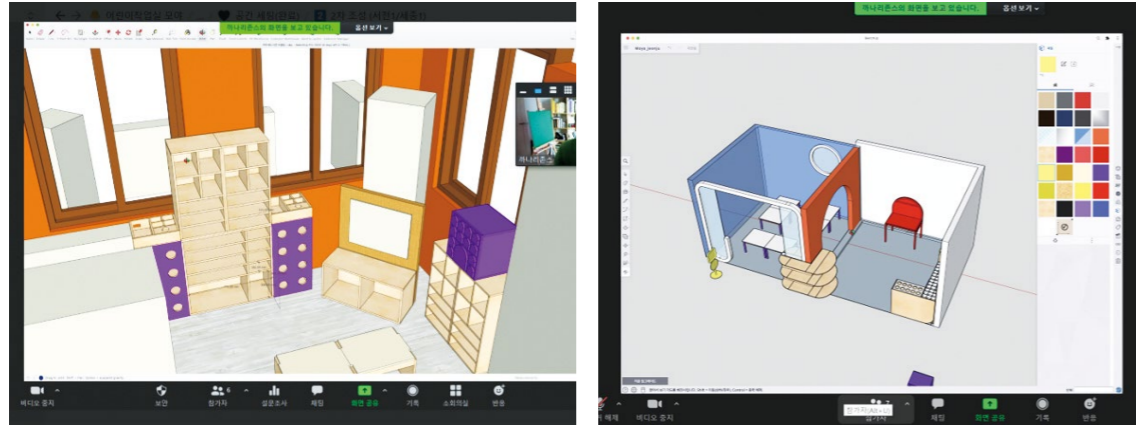


현장실측 단계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모야 작업실이 조성될 공간을 확정하고 실제 공간 사이즈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앞으로 진행될 조성과정과 일정,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현장실측 모습

공간배치 디자인 회의 과정은 실측 치수를 바탕으로 도서관 공간을 재연한 가상 프로그램에 모아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줌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도서관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전체적인 동선을 고려해 의견을 나누고, 사업 추진 단체들은 작업실 공간으로써 어린이들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의견을 나눕니다. 여러 시선으로 공간을 보고 가구를 배치하면서 개별도서관 환경에 맞는 최적의 작업실 공간 구성이 정해집니다.



공간배치 디자인 회의 모습

시공 단계에 포함된 도서관 정보확인 단계에서는 모아 재료비에 들어갈 재료와 도구 리스트를 공유해 도서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와 도구의 수량을 체크합니다. 이미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료와 도구의 수가 많다면, 해당 재료와 도구를 제외하고 다른 재료와 도구를 더 보충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료는 3개월분을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도서관 상황에 맞게 운영비로 구매합니다. 확인 과정이 끝나면 재료와 도구가 도서관으로 배송되기 시작합니다. 재료와 도구의 수가 많으므로 구글 공유 문서로 된 재료와 도구 리스트에 수령 받은 재료와 도구를 체크 해 누락 된 것은 없는지 상호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도서관과 시공팀의 일정을 조율하여 도서관에 직접 시공팀이 방문하여 어린이 작업실 시공이 진행됩니다. 공간배치 디자인회의에서 확정된 안으로 시공이 진행되지만 시공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안이 있으면 현장에서 조율하여 진행되기도 합니다.



시공 모습

이후 **현장감리**와 **운영자 매뉴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도서관 일정에 따라 두 과정이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유동적으로 순서를 변경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장감리 과정에서는 구글 문서로 공유된 도구/재료 배치 가이드에 맞게 도서관 운영자가 재료와 도구를 알맞은 위치에 배치 해주면, 알맞게 배치되었는지, 누락 된 재료와 도구가 있는지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현장감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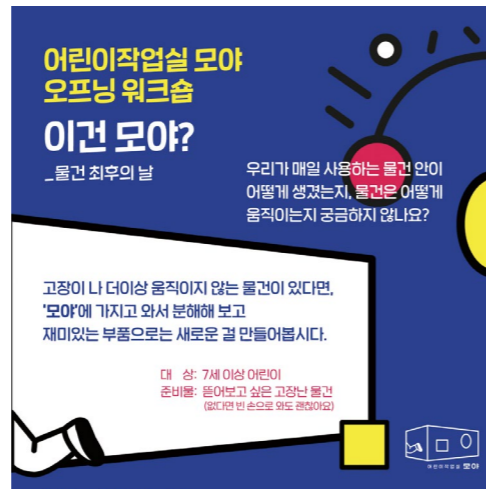
운영자 매뉴얼 워크숍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매뉴얼을 바탕으로 모야 작업실의 전체적인 가치관부터 세부적으로 어린이가 도서관을 찾았을 때 맞이하는 과정, 작은손과 작은손의 작업을 대하는 오른손의 태도 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야 재료바와 도구테이블에 있는 물품 중 오른손이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법과 활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때 오른손들은 여러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껏 질문합니다. 운영자 매뉴얼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오른손들끼리 세부적인 역할 분배와 도서관 안에서의 모야 작업실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베타오픈데이는 오른손이 운영자 워크숍을 통해 모야 작업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배운 것처럼 작은손들이 모야 작업실의 존재와 공간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사전 홍보와 신청을 통해서 작은손을 모집하고 작은손은 베타오픈데이 당일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가져옵니다. 베타오픈데이에서 작은손들은 모야 작업실 안에 있는 도구와 재료, 공간을 이용하면서 제품을 분해하고 분해해서 나온 재료들로 다시 자신이 원하는 만들기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으로 작은손은 모야에 대해서 자연

스럽게 체험하고 도서관 운영자들은 작은손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작은도서관은 오픈 날까지 작은도서관 안에 일상적으로 존재할 어린이 작업실을 운영할 준비를 합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어떤 곳인지 홍보도 하고 소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도서관은 도서관 내부의 활동가들과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 단체들과 소통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시작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끊임없이 운영자가 고민하고 시도해보면서 반응을 관찰하고 그렇게 도서관에 맞는 운영과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단계에서 도서관 내부 활동가와 사업 추진 단체 간의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10개의 각기 다른 작은도서관에 각기 다른 작업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자들만큼이나 다양한 고민과 고뇌의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공간 조성을 담당하는 릴리쿰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공간과는 다른 작은도서관의 작업실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릴리쿰의 까나리님의 글로 전합니다.



베타오픈데이 홍보물

© 2020. 씨프로그래, (주)릴리쿰,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베타오픈데이 모습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작업실

환영합니다.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스테이지는 10개의 서로 다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스테이지는 새로운 등장인물들과 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퀘스트 : 포탈(portal)을 이용해
작은도서관 안에 숨겨져 있던
어린이작업실을 소환하라’**

(주)릴리쿰 까나리

성공적인 모야 소환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작업실이 소환될 장소, 소환물(재료, 도구, 가구 등)이 필요합니다.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손의 약속입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자에서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작은손이 되는 것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모야에 입장하면서 작은손으로 변신을 약속하면 일상에서 볼 수 있던 물건들도 흥미로운 창작재료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공룡에 흥미가 있던 친구들과 저는 ‘난 스테고사우루스 할게. 넌 티라노사우루스. 그릉-크앙.’ 하면서 역할 놀이를 했습니다. 공간이 크든 작든 상관없었고 주위에 도구가 있으면 더 재미있었습니다. 세계관이 있고 역할이 있으면 몰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포탈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 속 도서관으로 소환된 작업실 모야와 작은손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작업에 쉽게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모야를 소환하는 장소 - 작은도서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마당이 있는 이층집의 아담한 공부방에서부터 따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길목형, 모야를 위해 선뜻 사무공간을 내어준 오피스형, 채광 좋고 널찍해 작업하기 참 좋은 ‘모야가 노른자 형’ 까지 저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모야를 사용하는 작은손들은 같은 도구와 재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그에 맞는 공간 세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도서관형 모야의 가구는 입장, 재료 탐구, 만들기, 퇴장과 전시까지 동선을 유도하는 형태로 제작되고 배치됩니다. 게시판의 역할을 하는 가구, 재료를 모아 놓은 재료바, 오른손이 관리하는 재료 수납장, 검색대, 전시대 등 각 집기마다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도서관형 모야의 가구는 고유의 역할 외에 다른 기능도 포함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손의 몰입을 도와줄 소환물 중 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크게 분류하면 시그니처 공간과 작업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시그니처 공간은 어린이들을 작은손으로 변신시키고 모야로 안내하고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것을 일상이라고 본다면 도서관 안에서 모야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야가 익숙해진 작은손들은 모야에서 작업하다가 책을 보러 도서관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반대로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커다란 포탈형 구조물 대신 작은도서관에 맞는 재미있는 장치가 뭘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 번의 아이디어 회의에서 정말 다양한 장치들이 거론되었지만 대부분 안전상의 이유나 범용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공원을 지나다 발견한 빛을 이용해 글과 그림을 바닥에 보여주는 고보조명이라는 장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보조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홀시어터 프로젝터와 비슷한 원리로 빛을 투과해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미지 내용을 커스텀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환영의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를 지나면 도서관 이용자에서 작은손으로 변신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술을 마시면 우리 이제 사귀는 거야.’라고 하던 영화 대사처럼 여기를 지나면 작은손으로 변신한다는 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아직 그 문턱에서 오글거리며 되돌아갔다는 작은손의 사례를 듣지 못한 것으로 봐서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장치를 지나 작업실로 들어갑니다. 작업실의 가구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외형부터 다듬어야 했습니다. 가구가 가진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료와 도구들이 조금 더 친밀하게(?) 가까이 붙게 되고 쓰이지 않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식적인 부분들이 제거가 되다 보니 가구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직각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재료를 담은 상자의 크기에 따라 일정한 높이와 너비를 가진 형태로 다듬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테트리스(Tetris) 게임의 블록들처럼 옆으로 겹쳐지고 쌓을 수 있는 모듈형 가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는 길쭉한 형태의 방에서는 길게 늘어뜨릴 수 있고 벽이 없는 공간에서는 칸막이처럼 나란히 벽을 만들기도 하고 책장을 대신하는 공간에서는 쌓이고 쌓여 재료(책) 장이 되었습니다. 유닛형 가구로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은 당시에도, 되짚어 생각해봐도 마치 퍼즐게임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각 유닛은 높이와 너비, 폭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어떤 모야에는 나란히 서 있던 유닛이 다른 모야에서는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종이와 셀로판지, 사포 등을 담을 수 있는 선반, 가장 많은 재료와 도구를 담는 공구 박스 2호 선반, 털실 혹은 전선처럼 긴 재료를 담는 구멍이 뿡뿡 뚫린 땡땡이 선반, 큰 재활용 도구들을 담는 네모선반까지

각 유닛은 고유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고 80cm의 높이로 되어 있어 윗면에는 작은 재료들을 올려놓거나 진행 중인 작품들을 잠시 올려둘 수 있기에 적합했습니다. 바구니를 가지고 선반들을 탐험하며 재료를 수집한 작은손들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은 작은 공간에 맞게 크기가 매우 작게 제작되었습니다. 공간이 부족할 시 쌓기에 용이한 구조를 가졌으며 서로 붙여서 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작업에 익숙해진 작은손들에겐 너무 작은 크기였나 봅니다. 테이블은 조금씩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고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 작업하기에 적합한 크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작업실이 작은 규모일 경우 테이블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크기를 유지하고 여러 명이 작업할 때는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가구들 사이에 특이한 녀석이 있습니다. 마치 칸막이를 연상하게 하는 커다란 벽면 같은 가구인데요. 이것은 칸막이가 맞습니다. 이 가구는 모든 도서관에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쓸 재료들을 적재해 둘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일부 도서관에서 작업실과 창고를 구분 지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쪽 칸막이 면에 재료 도구맵과 바닥 면에 재활용 재료 선반이 붙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 너머에는 모야 재료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 작업 계획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아날로그 네트워크 장치인 수수께끼 상자는 신비한 보라색 상자에 아치형 문들이 달린 형태입니다.

선반들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만들어진 이 가구는 아치형 문을 열고 그 안에 위에서 말한 레시피, 계획서, 작업에 영감을 줄 수 있는 글 등을 적은 종이를 넣어 공유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수수께끼 상자는 작은손 뿐만 아니라 작은손이 될 누군가가 흥미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특성에 따라 작업실 내부 혹은 도서관 어딘가에서 발견 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작은도서관 중 가장 먼저 모야를 소환한 곳인 은행나무작은도서관과 가장 나중에 모야를 오픈한 웃는책은 1년 가까이 제작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구의 모양과 배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구와 도구, 재료를 배치하면서 작은손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모야가 소환되었으니 이곳에 와서 조심하 사용하 줘 가 아닌 '가구의 높이는 언제? 수수께끼 서랍의 깊이가 깊지는 않아? 작은 재료들을 탐색하기가 어려운 위치인가?' 등을 포탈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작업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연이은 작업실 소환 일정 때문에 곧바로 수정 사항을 적용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조금씩 다듬어 갔고 작업 테이블의 크기와 재료 바의 크기, 배치 등이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결함이라 할 수 있을 법한 착오를 발견했을 때, 모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오른손과 사서, 관장님들이 자가해결하는 것을 보고 감탄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또래보다 키가 커서 작은손 테이블이 작아 불편했던 작은손을 위해 책상 발을 달아주고 글루건이 갈 곳을 잃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거치대가 생겨나고 쇠도 뚫는 드릴로부터 빨간 안전테이블을 구해주는 우드 블록 등등 불편함에 대한 기발한 피드백들은 이후 모야에 반영되어 좀 더 멋진 어린이작업실 모야가 생겨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작은손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작은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도서관을 지나다 작은손들이 열심히 사용한 글루건 흔적들 톱질 부스러기, 무언가를 설계한 듯한 낙서를 볼 때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작은손의 흔적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또 다른 작은손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함께 만드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1. 함께 만드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워크숍

오른손과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의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운영할 작은도서관이 선정된 후 앞으로 진행될 일정과 전체 사업 과정에 대해 공유하는 워크숍을 가졌고 모든 도서관에 작업실이 조성된 시점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다시 한번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방향과 운영의 목적, 목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KICK OFF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 후에는 먼저 운영되고 있던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진행된 연구 '임팩트 리서치'를 공유하는 살롱을 시작으로 작업실을 운영하는 오른손의 의견과 모야 사업 추진단의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지금까지 총 3번의 살롱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과 살롱 외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방문해서 운영되고 있는 작업실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오른손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생한 작업실 운영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조성된 후 지금까지 총 3번의 모니터링이 있었고 이 중 2번은 10개의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워크숍과 살롱,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사업 추진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오른손, 작업실의 상황과 고민을 파악하고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방향으로 함께 풀어낼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정된 워크숍과 살롱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이 운영되는 상황과 시기에 맞게 오른손들의 운영 고민을 풀어낼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음 계획이 사라지거나 기존에 없던 계획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워크숍, 살롱, 모니터링을 공유합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설명회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설명회는 2020년 9월,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4개의 사업 추진 단체와 선정된 10개 작은도서관들이 처음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나누고 앞으로 진행될 전체 사업 과정과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회 진행 전 설문 조사를 통해서 궁금한 질문을 받았고 모야 재료비에 비치될 재료 구성, 작은손 보호자를

위한 안내사항, 앞서 먼저 운영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과 제천기적의도서관의 운영 경험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담당자가 모인 단독방이 만들어졌고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 서류 양식들을 전달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 단체들이 직접 워크숍에 참여하여 모야 사업의 방향과 세부 진행 일정, 모야 공간의 구성을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워크숍 전 작은도서관에게 모야 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고 사업 지침과 세부 일정을 설명하여 모야 사업 실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설명회 진행 내용

순번	내용	진행자
1	사업 추진 단체 및 선정 작은도서관 소개	(재)도서문화재단씨앗
		(주)릴리콤
		씨프로그래밍
		10개소 작은도서관 대표자
2	어린이 작업실 모야란?	씨프로그래밍 신혜미 매니저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어떤 모습일까?	릴리콤 물고기
	사업 진행 일정 & 작은도서관의 역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에서 간사

잘 시작해 보자고! 워크숍(KICK OFF 워크숍)

'잘 시작해 보자고! 워크숍'은 10개 작은도서관에 어린이 작업실이 조성된 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 전인 2020년 12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대표자 및 사업 담당자, 모든 오른손이 참여해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다시 공유하고 운영을 앞두고 고민되는 지점과 2021년 사업계획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서 개별 작은도서관의 작업실 운영 계획과 고민되는 점, 1년 뒤 우리도서관의 모야 모습에 대해 수집했습니다.



잘 시작해 보자고! 워크숍 포스터

사전 설문조사 질문 내용

- A. 모야 운영방식(계획)
- B. 오른손 인원, 활동방식(계획)
- C. 모야 홍보 방식(계획)
- D. 모야 운영에 대한 고민
- E. 사업 주관 단체, 다른 도서관과 나누고 싶은 말
- F. 1년 뒤 우리 도서관의 모습(목표)

1년 뒤 우리도서관의 모야 모습(목표) 키워드 정리

키워드	작은도서관	목 표
모야 +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작업실과 도서관의 조화, 서로 존중하고 자유로운 곳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책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직접 시도해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창작공간
작은손 스스로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1. 작은손들이 스스로 스케줄, 모야규칙, 개별작업 외 합동작업도 가능하도록! 2. 친구들이 생기도록! 저희 마을은 초등학교생들의 모임이 거의 없어, 모야에서 실현되길 바랍니다.
	여우네도서관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함께 하는 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하는 모습을 배우는 과정이 되면 좋겠다.
자유롭게 마음껏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어린이들의 일상이 되는 도서관,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는 도서관, 뭐든 할 수 있는 도서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모야 작업실에 익숙해져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자유롭게, 신나게 활동하는 활기찬 도서관.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1년 뒤 도서관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거리낌 없이 방문하고 모야도 참여할 수 있는 곳
새로운 오른손	그나라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운영시간 내에는 자유롭게 어린이들이 들락거리며 마음껏 작업하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공간의 운영 취지에 공감한 뒷집손들이 다양한 형태로 오른손으로 봉사하기를 기대한다.
	작은도서관 웃는책	1. 다양한 창작품의 등장 2. 참여어린이 지속적 증대 3. 오른손 증가(청소년 오른손 확보)

‘잘 시작해 보자고! 워크숍’을 통해 10개의 작은도서관이 모야 공간 구축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모야 공간을 운영하는 시기에 맞춰 모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10개 작은도서관이 서로의 공간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시기에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간접적으로 10개 작은도서관의 모야 공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생긴 질문과 고민을 서로 나눔으로써 작은도서관의 모야 공간 운영 준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 함께 만드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살롱

*살롱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진행되는 당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살롱#1 임팩트 리서치 공유회



임팩트 리서치 공유회

© 2020. 씨프로그래, (주)릴리쿰,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임팩트 리서치 공유회는 2021년 3월 23일 진행된 ‘제천기적의도서관 작은손 행동 유형 관찰 연구 결과’ 공유회였습니다. 작은도서관보다 앞서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운영한 제천기적의도서관을 방문한 작은손들의 행동 관찰을 기반으로 작은손의 모야 작업실의 이용 유형, 작업단계 유형, 유형에 따른 작업실 환경 조성 연구를 공유하는 살롱이었습니다.

살롱을 통해 작은손마다 작업실에 적응하는 단계와 이용하는 단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손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작은손 작업을 유형별로 단계화하고 각 단계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음 작업단계로 확장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리서치 공유회를 통해서 전문적인 연구팀(MYSC)의 작은손 작업과정에 대한 분석을 듣고 작은손 작업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작은손들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단계에 맞는 작업 촉진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손을

대하는 여러 상황에서의 다양한 고민이 있던 작은도서관들도 각 작은손의 특성과 상황, 유형을 세분화해서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앞서 조성되어 다양한 촉진을 시도한 제천기적의도서관의 어린이 작업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다양한 작업실 운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롱#2 손에 손잡고

2021년 1:1 줌 모니터링을 거치면서 알게 된 오른손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가, 작은손 작업의 촉진과 개입의 모호한 경계 위에서 작은손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작업실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 중, 작은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있다고 생각되는 곳들의 오른손들을 대담자로 모시고 작은손과의 소통, 작은손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를 기획했습니다. 유튜브로 송출해 다른 도서관들은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6월 진행한 ‘살롱#2-손에 손잡고’는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해 작은손을 대할 때 어려웠거나 고민되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수집했고 이 사례들을 6개의 오른손 원칙에 기반해 분류하고 토크쇼 대담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구성했습니다.

오른손의 6가지 원칙

1. 작은손의 '나다움'을 인정한다.
2. 동등하게 대한다.
3. 각자의 속도를 존중한다.
4. 답으로 가는 가장 먼 길을 제시한다.
5. 엉뚱함을 응원한다.
6. 평가하지 않는다.

*살롱#2 이후 오른손 원칙은 4가지로 수정되었습니다. (16p참고)

구체적인 사례를 오른손의 6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분류 한 것

1. 작은손의 '나다움'을 인정한다. / 6. 평가하지 않는다.

- 1) 칭찬하는 것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혹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 2) 그럼 감탄도 하면 안될까요?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3) 어린이들의 성향에 따라 동기부여가 달리 되기도 하는데, 보면 칭찬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도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

2. 동등하게 대한다.

- 1) 선생님이 익숙한 어린이들이 있다. 별칭을 부르는 게 어색해서 선생님을 부르게 되어요. 어색함을 이기면서까지 서로의 별명을 부르는 거 동등한 관계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 2) 도서관 안에서의 관계에도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일까요?

3. 각자의 속도를 존중한다.

- 1) 탐색을 오래하는 친구들, 정말 '이런 재료도 있는데 어때' 정도도 하면 안될까요? 정말 기다려 주기만 해도 될까요?(오른손이 직접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 2) 어린이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작업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요. 소개해도 될까요? 특히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것도 만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을까요?
- 3) 재료와 도구가 익숙해진 어린이들, 나름 속도가 빠른 친구들, 이제는 작업을 약간 지루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친구들을 동기부터 할 수 있는 장치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4) 먼저 청해오기 전까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는데, 도움을 청할 경우 어디까지 도와줘야 할까?(예. 톱질을 어떻게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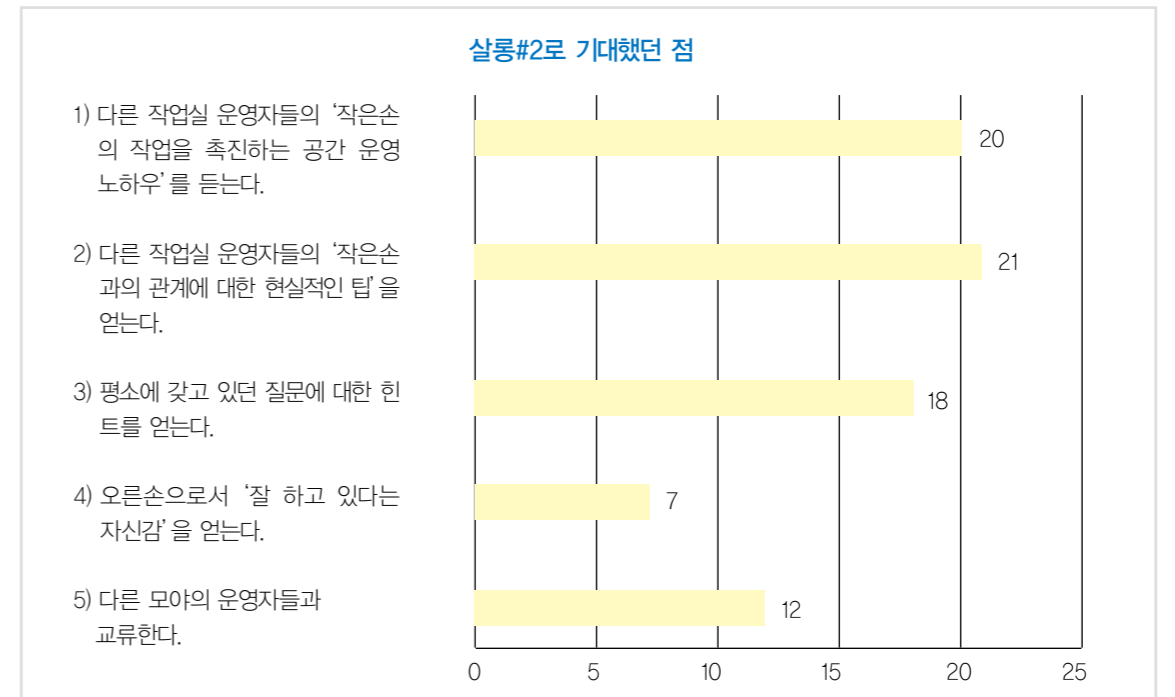
4. 답으로 가는 가장 먼 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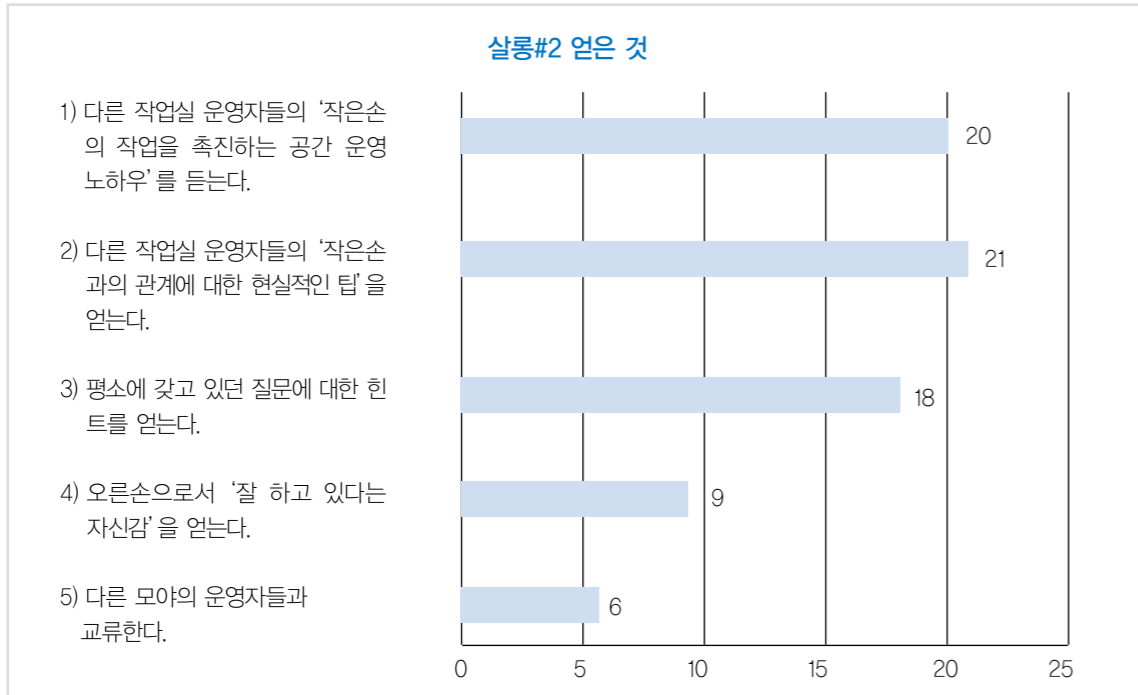
- 1)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작업물을 만들어요.(예: 하늘을 나는 자동차) 어떻게 해야 할지 자꾸 물어봐요. 어린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도와줘야 할지 거듭 실패해도 뒤야 할지 고민되어요.

5. 기타

- 1) 운영자 간의 연결: 작은손 상황 오른손끼리 의견이 다를 땐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 가시나요?
- 2) 책과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혹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시도가 있었나요?
- 3) 만들기에 관심 없고 계속 대화만 시도하는 작은손
- 4) 어디까지를 작업이라고 보고 제지하지 않아야 하는지: 마구 소진, 마구 작업
 - a. 수수깡이나 우드락 격파를 해요.
 - b. 연필을 몽땅 연필로 만들어요.
 - c. 풀을 다써서 슬라임을 만들어요.
- 5) 탐색용 테블릿 피씨 사용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내내 작업 영상만 봐도 그냥 뒤도 괜 찮을지)
- 6) 뒷짐손과 커뮤니케이션: 과도한 애정 / 또는 무심한 사람들

살롱이 끝난 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번 살롱을 통해 기대했던 점과 얻은 점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살롱을 보면서 작은손을 대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 하는 다짐들을 모았습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자!

1) #선생님NO #도움NO #수평적관계YES

- 돌봄이 되지 말자. 선생님이 되지 말자.
- 안돼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자
- 모야에서 만큼은 선생님이 바라보게 하지 말자. (수평적인 관계, 안전거리 유지를 희망하며)
- 안돼요 하지 말자

2) #칭찬 #반응

- 구체적이지 않은 습관성 칭찬은 지양하자!
- 작은손의 질문에 바로 응하지 말자
- 즉각적인 해답제시!
- 우와~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지 말자
- 칭찬은 구체적이거나 작품으로 서로 이야기하듯 질문으로 하자!
- 무조건 도움 무조건 칭찬은 하지 말아요
- 칭찬보다 공감하기

3) #참견NO

- 다른 어린이디어를 재촉하지 말자
- 어린이들 강요하지 말기
- 참견하지 말자
- 답을 주지 말 것
- 작업의 마무리를 내가 해주지 말자
- 어설픈 관찰과 참견은 하지 말자
- 완성품에 집착하지 말자
- 시간을 정해주지 말자
- 스스로 하도록 권유하자
- (작은손 친구들에게) 해주려고 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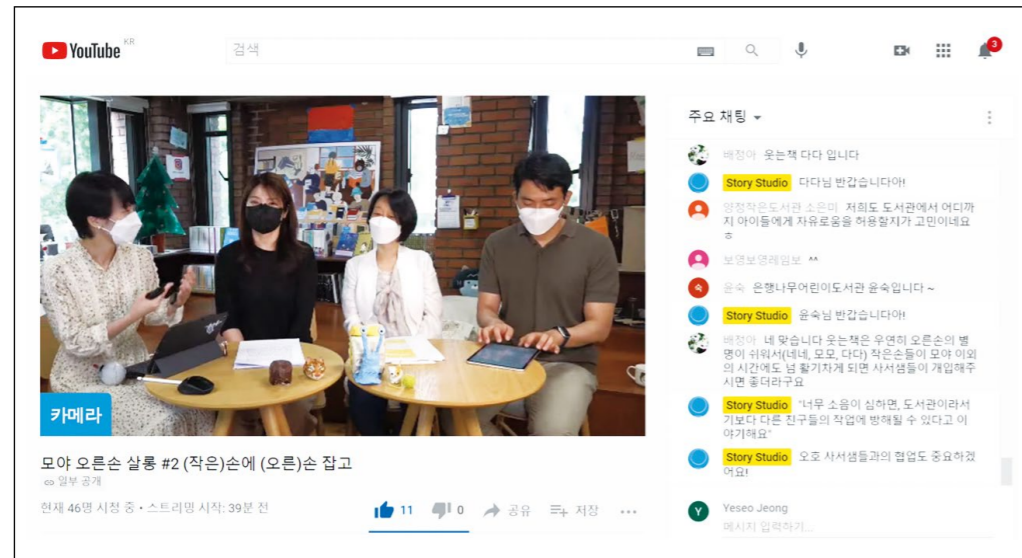
4) #오른손의 마인드 셋

- 답답함 갖지 않기
- 조급해하지 말자
- 잘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자

5) #기타 #편견NO

- 한 번의 모습으로 작은손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자
- 미루지 말자

‘손에 손잡고 살롱’은 도서관과의 1:1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오른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주제로 기획해 오른손을 지원하기에 적절했습니다. 또한 사전 설문을 통해 작은손을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오른손들의 고민을 미리 수집하여 오른손의 직접적인 고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원칙 6가지를 기준으로 사례를 분류해서 오른손들이 오른손 원칙에 대해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고 참여 후 설문 조사를 통해 기획 의도와 참여자가 얻은 것이 동일한지 파악하고, 다음 살롱의 주제로 오른손들이 직접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살롱#2 손에 손잡고

살롱#3 오른손의 창작하는 자신감을 위한 워크숍

세 번째 살롱 ‘오른손의 창작하는 자신감을 위한 워크숍’은 2021년 7월 총 3일에 걸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릴리쿰 스테이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1 줌 모니터링을 통해 오른손들이 전기 재료와 도구, 전기 관련 만들기가 어렵고 낯설게 느낀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전기를 활용한 만들기를 함으로써 전기 재료와 도구에 대한 오른손의 고민을 해소하는 살롱을 기획했습니다.

살롱#3 진행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진행자
1부	10:00	[회로의 침공술] 게임을 통한 아이스브레이킹, 전기 기초 지식 전달	릴리쿰-상호
2부	11:30	사물 해킹 & 리버스 엔지니어링 : 전기파리채를 해체하고 회로 들여다보기 (전자회로 실습)	릴리쿰-물고기
점심시간	12:30	-	
3부	1:30	다양한 기계 탐방 & 제작 : 해킹한 부품들과 미리 준비한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랜덤 키워드 제작 미션 도전	릴리쿰-까나리, 호랑
마무리	4:30	랩업	전체

총 1~3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전기와 전자에 대한 기초지식을 공부하고 ‘회로의 침공술’이라는 전기 블록을 통한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전기 파리채를 직접 해체해보며 회로 구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에서는 해체한 부품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오른손이 직접 작은손이 되어 만들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일간 총 28명의 오른손이 대면으로 참여했고 작은도서관 뿐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공간의 오른손도 함께 모여 오른손끼리 처음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 후 설문을 통해서 살롱#3에 기대했던 점과 얻은 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했고 다음 살롱으로 필요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1) 살롱3에 기대했던 점

#낮선 전기(전기 관련 재료, 도구)에 대해 배우는 시간!

- 저도 모르는 전기! 설명하기 힘들어요!!
- 도구와 재료(전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 전기 회로에 대한 대략적 이론을 배우고 모야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를 한다.
- 전기 관련 만들기, 기본상식에 대한 학습
- 어린이들이 관심 갖는 전기의 전반적인 지식 습득
- 전기 관련 이해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 부족했던 지식 함양과 인적 교류
- 전자재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 전자회로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과 실제로 동작해보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대했습니다!
- 작은손 친구들과 부담 없이 제작 할 수 있는 전기 회로를 사용하는 팁
- 건전지를 이용한 전기장치 만들기
- 전기 재료 이해 및 사용법 숙지

#릴리쿰 공간 방문&새로운 도구(기계 접하기)

- 릴리쿰 구경과 워크숍의 느낌 엿보기!
- 기술적인 지식 습득, 릴리쿰 체험
- 전기마스터와 릴리쿰의 선진기계 접하기
- 다양한 머신 관찰, 공간 구성, 전자 관련 지식 습득
- 전산 회로 및 오른손들을 직접 보고 싶고 릴리쿰 사무실도 보고 싶었습니다
- 릴리쿰 장비를 사용해 보는 것
- 잘 쓰이지 않거나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는 재료의 사용법을 알고 싶었다

#오른손들과의 직접적인 교류

- 다른 도서관의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직접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시간

- 오른손의 작은손 작업

#기타

-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진행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 것
- 응용할 수 있는 그 무엇
- 모야 운영 전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2) 살롱3을 통해 얻은 것

#전기 잘알로 재탄생

- 전기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작품활동으로 확실한 습득 완료입니다.
- 전기의 활용법을 알게 되어 좋았고 릴리쿰, 공간에서 살롱을 하게 되어 모야 공간을 재미있게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 전도 테이프를 붙여서 만든 나무토막(젠가)으로 간단하고 재미있게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며 어린이들과 놀 수 있을것 같다. 전기파리채 해킹도 충분히 어린이들과 할 수 있을것 같다. 유익했다. 단 나의 기억력이 문제다.
- 쉬운 설명으로 전자, 전류 등을 설명해 주셔서 작은손에게 좀더 쉽게 전자도구의 활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 전기관련 만들기, 기본상식에 대한 학습
- 전기 울렁증 극복하는 계기
- 전류의 흐름을 이해하여 전기의 기본 원리를 배웠습니다.
- 전기재료 기본적인 이해로 작은손들과 적극적인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음
- 전기지식 +2 획득
- 전기에 대한 이해

#작은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 직접 모야에 참여해 보니 작은손들 활동을 이해하고 창작의 어려움을 느꼈으며 모야를 -운영하는 작은손들을 직접 만날수 있어 연대의식이 느껴져서 좋았다.
- 막상 작은 손이 되어보니 시간도 빨리가고 만들기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통한 경험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많이 해보는게 중요할듯 해요.
- 전기에 대한 공부도, 오른손의 어려움만 호소했는데 작은손의 마음도 조금은 알수 있을거 같아요.

- 작은손과 오른손의 마음 헤아리기
- 작은손이 되어보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다시 느껴보았어요.
- 작은손이 되어 창작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보다 더 헤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작업 시간, 재료 세팅 방법, 진행 방식 등.
- 일일 작은손이 되어보니 작은손들이 주로 쓰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오른손과의 교류

- 그리고, 타지역 오른손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 기대한 것보다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었고
- 타도서관과 교류
- 다른 도서관의 경험
- 교류, 소통 좋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 활용법 습득

- 젠가에 구리선테이프 연결한 것이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당장 실천하고 싶습니다!
- 1.전기에 대한 흥미 2.멀티미터 사용법 3.인두기 사용법 4.상호님께서 잘라주신 동그라미나무판
- 릴리콧 작업장과 스토리지, 재료바 등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물론 워크숍두요~
-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재료와 도구의 원리 파악과 바른 사용법, 창작 아이디어,
- 상호님과 물고기님의 결코 어렵지 않은 설명을 보며 저도 어떤 식으로 이과적 지식을 친구들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관련 영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설명하는 법, '모야' 진행에 대한 다양한 조언 등.
- 다양한 장비들의 용도
-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전기관련 재료들을 접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3) 살롱3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

- #대면이라 좋았어요!
- #참여하는 요일이 다양해서 선택하기 좋았다
- #워크숍 구성이 좋았다.
- #다른 오른손과 더 교류했으면 좋겠다
- #모야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시간이 길었어요

4) 다음 살롱의 주제로 원하는 것

- #살롱3과 비슷한 워크숍이라면 #목공 #다양한 도구,재료
- #모야 운영 공유
- #아직 전기가 부족해
- #다시 한번 모야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
- #직접 모야 공간 업그레이드

'살롱#3-오른손의 창작하는 자신감을 위한 워크숍'이 전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된 덕분에 오른손들이 전기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직접 전기 파리채를 해체한 부품을 활용하여 작은손처럼 만들기를 하면서 작은손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후 설문문을 통해 모야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는 점과 다른 도서관의 모야 공간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 함께 만드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 - 모니터링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는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운영 매뉴얼은 작업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절차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작은손을 대할 때, 작업실을 운영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모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직접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각기 다른 성향과 개성을 가진 작은손을 만나는 과정은 훨씬 다채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실 운영 전반을 체크하고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고민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의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서 오른손들이 가진 고민의 변화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을 운영하는 초기에는 작은손을 대하는 상황에서의 오른손의 대처와 행동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잘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도구, 가구의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또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는 기준과 다양한 모야 테이블 기획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작업실 운영이 1년 차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작은손의 작업 확장과 촉진에 대한 고민, 뒷집손과의 소통, 운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서 모이는 여러 사례와 실험들을 보고 각각의 고민의 단계에서 다양하게 시도할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함께 고민합니다. 모니터링은 그 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과정은 우선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운영 전반에 걸친 아젠다를 제공하고 도서관이 현재 상황을 적어주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과 작업실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같이 고민하며, 다수의 도서관이 동시에 가진 고민이라면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숍과 살롱,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사업 추진단은 개별 작업실의 운영 상황과 고민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과 콘텐츠 기획의 배경을 마련하는 시간이고 작은도서관은 그간의 운영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과 작업실 운영의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장모니터링

2021년 상반기 현장모니터링은 2020년 작은도서관의 어린이 작업실 공간 구축이 전부 완료된 후 2021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작은도서관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민을 직접 듣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10개소는 2020년 5월~12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되어 2021년 상반기 현장모니터링이 진행된 시점은 모든 작은도서관의 어린이 작업실이 운영되고 있는 첫 시기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개의 작은도서관을 전체 방문하였고, 2020년 운영비 회계 점검 사항 및 모야 작업실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 점검과 특이사항 및 고민 사항,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인터뷰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현장모니터링으로 운영진이 교체된 작은도서관에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운영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재과 톱 등 기존에 제공되었던 재료와 도구 중, 실제 작은손의 작업과정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두께와 강도)을 가진 재료와 도구는 같은 종류 안에서 다른 두께와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단독방을 통해 정보가 교환되기도 했습니다.

10개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각각 다른 운영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민과 운영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현장 방문을 통해 2021년 상반기 당시 어린이 작업실들의 공통 이슈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파악한 공통 이슈와 이후 줌 1:1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공통 이슈는 살롱 기획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에서 파악한 공통이슈

- (1) 재료에 대한 고민: 적절한 목재, 전기재료 활용, 다양한 재료조합
- (2) 도구에 대한 고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도구(톱, 드라이브세트 등)
- (3) 작업책상에 대한 고민: 작은손에게 작은 작업 책상의 크기
- (4) 도구테이블에 대한 고민: 상판교체, 힘이 들어가는 작업시에 고정이 안되는 부분
- (5) 재료 활용에 대한 아쉬움: 동영상으로 찾아봐도 설명이 어려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
- (6) 도서관과 모야의 조화: 도서관이 일상화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인원이 많았을 때의 컨트롤, 인원제약 등
- (7) 공유문서 사용: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공유문서
- (8) 방학기간 + 코로나19: 작은손 수 제한, 이용자 감소 등

2021년 1:1 줌 모니터링

'1:1 줌 모니터링'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기록(오른손·작은손 일지, 페이스북 사진 아카이빙)과 현재 모야 재료바에 있는 도구 및 재료 리스트, 모니터링 아젠다 답변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별 상황 공유와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운영 고민을 나누고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시도를 제안하는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모니터링은 2021년 3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추진단에서는 씨프로그래밍의 신혜미 매니저가 주 인터뷰어로 참여했고 (재)도서문화재단 씨앗과 협회도 함께 참여해 도서관의 작업실 운영을 파악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관장을 포함한 모든 오른손이 참여했습니다. 모니터링이 끝난 후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고민에 대해 도서관별로 시도해볼 대안들을 문서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2021년 1:1 줌 모니터링 아젠다>

1. 작업실 이용 전반적 현황 : 작업실을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 (1) 전체 오픈일수 + 방문횟수(이용자수)
- (2) 작업 하는 친구들 중 도서관에 오던 친구들 vs. 새로운 친구들의 비중
- (3) 작업실에 재방문 하는 친구들의 수 (전체 이용자수 대비)
- (4) 도서관 평균 체류시간,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 : 도서관에 오던 친구들은 체류시간이 늘어났는지, 작업실의 영향이라고 보는지 / 그중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 (5) 기억의 남은 '작업'에 몰입하는 작은손 사례, 작업실을 흥미롭게 사용하는 작은손 사례가 있다면? (예:확실한 주제를 가지로 스스로 끝까지 완성한 친구가 있다면?)
- (6) 주요 장면에 대한 사진들이 있다면 같이 보아요.)

2. 작업실 환경 : 시그니처 공간 + 작업 공간등의 공간 환경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작업을 시작하게 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환경인지

- (1) 전환의 장치들
 - 전환의 요소들 (라이트, 수수께끼책장)이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서관이 아닌 작업을 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는지
 - 수수께끼 책장 활용도는 / 자유롭게 서로의 레시피를 주고 받는 기능을 하는지 / 어려워 하진 않는지
- (2) 작업실
 - 작업 하는 곳으로 인식하는지 (도서관 또는 놀이터 공간으로 인식하진 않는지)
 - 작업실 내 가구들의 활용도
 - 테이블 : 편안한 작업자세가 가능한지, 어린이들의 이동동선과 작업하는 친구들이 섞이진 않는지
 - 재료책장 : 재료 탐색이 용이한지, 재료 탐색을 즐거이 하는지
 - 재료 창고 : 현재 재료들의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정하게 도서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재료의 양은 어느정도 인것 같은지
 - 작업반장테이블 : 도구를 사용하는 테이블이 모야와 거리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어려워 하진 않는지
 - 전체적인 가구를 사용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한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3. 재료와 도구

- (1) 재료의 사용성
 -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상한 것 대비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 기본재료/ 채집재료/재활용 재료별로 초기 세팅된 수량이 적합한지
 - 적정재료를 사용하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의견 (재료의 낭비가 걱정이라는 의견)
- (2) 재료 추가 및 관리
 - 재료를 추가로 채워넣는 시기가 있었는지 / 어떤 방식과 주기로 재료 세팅을 하면 좋을지
- (3) 도구
 - 도구테이블의 도구를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운영자가 가이드를 줄 때 어려움은 없는지
 - 도구 사용에 대한 오른손의 부담은 없는지
 - 위험성이 높은 도구가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도구가 있는지
 - 추가적인 도구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도구들인지

4. 작업/ 작업과정

- (1) 모야를 처음 이용하는 친구들에 대한 안내: 작은손 약속을 인지시키고, 멤버(벤티제작)가 되는 것을 안내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 (2) 입퇴장동선 : 도서관에 들어오고 모야에 입장하고 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러운지, 어색하다면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할지
- (3) 작업동선 : 어린이들이 작업실 안에서 스스로 원하는 작업을 하기에 동선상 장애물은 없어보이는지, 있다면 어떤 상황 또는 환경인지
- (4) 작업일지 : 작업일지를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작업하는 친구들 중에 어느정도 되는지
- (5) 작업 보관 및 공유 :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의 요구가 있었는지

5. 운영

- (1) 운영자의 역할 수행 : 현재 핵심적으로 오른손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른손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공간 환경적으로 써포트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 (2) 부모들의 인식 : 부모들의 작업실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정도인지 /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지 여부
- (3) 운영 기록 : Daily weekly 작은손 기록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더 잘 기록하기 위

한 제안이 있다면.

- (4) 매뉴얼활용도 : 운영하면서 매뉴얼을 얼마나 참고하는지,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지

6. 도서관의 변화

- (1) 모야를 통해 어린이들의 도서관 사용에 대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지
- (2) 모야를 통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 (3) 모야에 대해 동네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7. 도서관 분들의 회고

- (1) 전반적으로 운영해보시니 기대했던 바와 같았던 점/ 달랐던 점 / 어려운 점

1:1 줌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업 추진단은 작은손 관찰의 중요성, 꼼꼼한 기록의 중요성, 주 운영자 존재의 중요성, 오른손끼리 주기적인 소통의 중요성, 모야 사업의 성과 기준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잘 사용하지 않는 모야 가구와 재료 및 도구에 대한 고민, 작은손과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 이러한 고민을 보완해줄 다양한 시도와 방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현장모니터링

2021년 하반기 현장모니터링은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이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작업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및 공간 안정성, 작은손 작업 경험의 촉진, 도서관과 모야의 연결성,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준비' 4개의 시점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2022년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현장모니터링 아젠다〉

1. 운영 안정성 및 공간 안정성

1) 작업실 운영

(1) 모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예시) 도서관 이용시간에 맞춰 모야도 오픈하여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약제 기반으로 운영하는지 /특정 요일만 지정하여 오픈하고 있는지 등

(2)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도해 본 운영방식이 있나요? 반응은 어땠나요?

(3)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나요?

2) 작업실 이용실태

(1) 전체 모야 방문자 수/ 그 중 재방문하는 친구들의 비율(추정)

(2) 신규 방문자도 지속적으로 있나요?

(3) '평균 체류시간 /오픈초반 대비 체류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나요?

3) 뒷집손과의 소통

(1) 뒷집손의 반응, 모야의 이해도는 어떤가요?

(2) 뒷집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자연스러우신가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요?

예시) 모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 /관심이 도서관까지 이용하도록 한 시도

4) 가구/공간, 재료/도구

(1) 재료, 도구

가. 재료와 도구의 수급 및 공간 배치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나. 추가적으로 투입한 재료/도구가 있나요?,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가구, 공간

가. 기존의 공간 세팅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 공간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요소가 있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작업 경험 촉진

1) 콘텐츠(재료/도구) 기반의 작업 촉진

(1)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경향이 보이나요? /운영초반의 양상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2) 작은손의 재료/도구 활용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지점이 있나요?

2) 작업 경험 촉진

(1) 신규 작은손과 계속 오는 작은손의 작업(경험)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 친구들에게 각각 다르게 노력하는(적용하는) 점이 있나요?

(2) 작업 (경험) 촉진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나요? 예시) 재료데이 등

(3) 작업에 영감이 되는 전시 공간은 마련되어 있나요? 어떻게 전시를 운영하시나요?

(4) 어떤 작업들이 주로 일어나나요? /작업물 사진을 공유해주세요(기록공유, 전체 작업물 사진이 어렵다면 일부도 좋습니다, 이런 작업들까지 있었다! 작업고수들의 사례)

3) 작업 기록

(1) 새로운 일지 양식(엑셀파일)에 잘 기록하고 계신가요?

(2) 기록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예시) 운영할 때/ 이용자를 이해할 때 적극적으로 기록을 들춰보고 활용

(3) 작은손의 작업물은 어떻게/어디에 모으고 계신가요? (구글포토에 저장, 블로그에 저장 등)

3. 도서관과 모야의 연결성

1) 도서관 활동과 연결되도록 시도 해본적이 있나요? 반응은 어땠나요?

2) 도서관과 작업실의 연결,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4. 지속가능성을 위한 준비

1) 모야를 운영한 지 약 9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운영을 해보니 어떠신가요?

기대와 같은 점 /기대와 다른 점 / 어려운점 / 뿌듯한 점

2) 앞으로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도서관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적어주세요!

여기에 더해 그간 참여 후 설문에서 지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오른손들의 '서로 다른 모야 공간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위의 파란색 질문 5개를 기준으로 다른 도서관과 공유하면 좋은 사례가 있는 도서관을 선정해 페이스북을 통한 현장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 현장라이브

다른 도서관의 모야 작업실을 생생히 볼 수 있는 기회!

#코로나에도 도서관은지지않지 #작은손 작업이 쑥쑥 #도서관과 작업실이 함께

페이스북 라이브 일정 LIVE

- 10월 21일 10:20 바른샘어린이도서관
- 10월 25일 10:00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 10월 28일 12:10 작은도서관 웃는책
- 11월 04일 13:00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 11월 12일 14:30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 11월 18일 11:20 제천기적의도서관

두가지 방법!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기
2. 당일 공유되는 페이스북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접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현장라이브

*큐알코드를 통해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현장라이브'를 검색하시면,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어있는 현장 라이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라이브를 진행할 도서관들은 모니터링 전날 씨프로그래밍 신혜미 매니저와 개별 연락을 통해 현장라이브에서 어떤 순서로 다양한 콘텐츠와 내용을 보여줄지 논의했고 도서관마다 35분에서 45분가량 라이브를 통해 도서관마다 특성을 살려 시청자와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작업실을 운영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운영 현황과 작은손 작업 촉진을 위한 고민, 사업이 끝난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고민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고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기간의 중간에 접어든 시점에서 작은도서관에 모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사업 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함께 만드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4. 사업 추진단 회의 및 어린이 작업실 모야 플랫폼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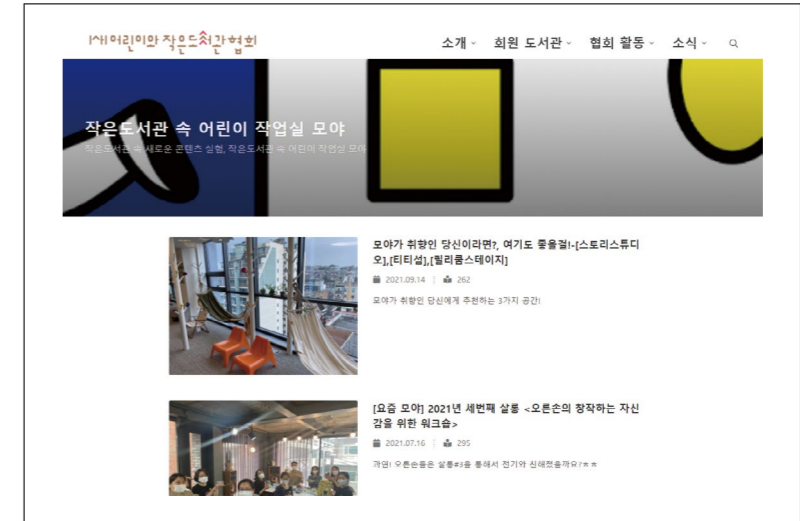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주)릴리컴, 씨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단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공간 조성, 모니터링, 워크숍 및 살롱, 퀘스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다양한 설문 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작은도서관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작은손의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확장될 수 있게, 또 그 안에서의 오른손 존재와 관찰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단은 회의를 통해 매 단계에서의 정확한 목표와 목표에 부합하는 실행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 후에는 목표에 맞게 실행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어린이 작업실 운영자들의 피드백을 살펴 다음 단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각 과정에서 작은도서관과 어린이 작업실의 상황을 고려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게 논의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목표에 맞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플랫폼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의 회의와 문서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노션과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했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사업이 시작된 만큼 대부분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은 비대면 화상회의(zoom)와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간배치 디자인회의, 모니터링, 워크숍과 살롱 등을 참여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오른손이 직접 작성하는 작업실 일지를 공유하는 방법도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작업실 운영 초기에 작은손들의 작업 관찰과 사진 공유를 위해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페이스북 페이지에 작업 사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도서관별로 작은손의 사진을 수집, 기록하기 좋은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플랫폼을 선택한 도서관은 지금도 지속해서 작은손 작업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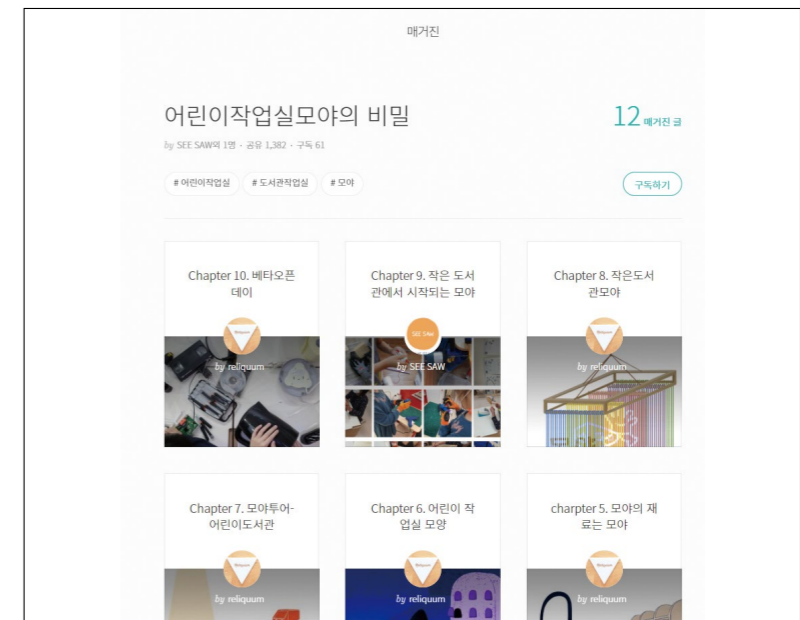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모야 게시판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게시판’과 ‘네이버포스트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시리즈’를 통해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 ‘백열등’을 통해 매월 간단한 모야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씨프로그래밍과 씨앗, 릴리쿰에서도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브런치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비밀’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거진에서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 탄생 스토리, 릴리쿰의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브랜딩, 가구 디자인, 고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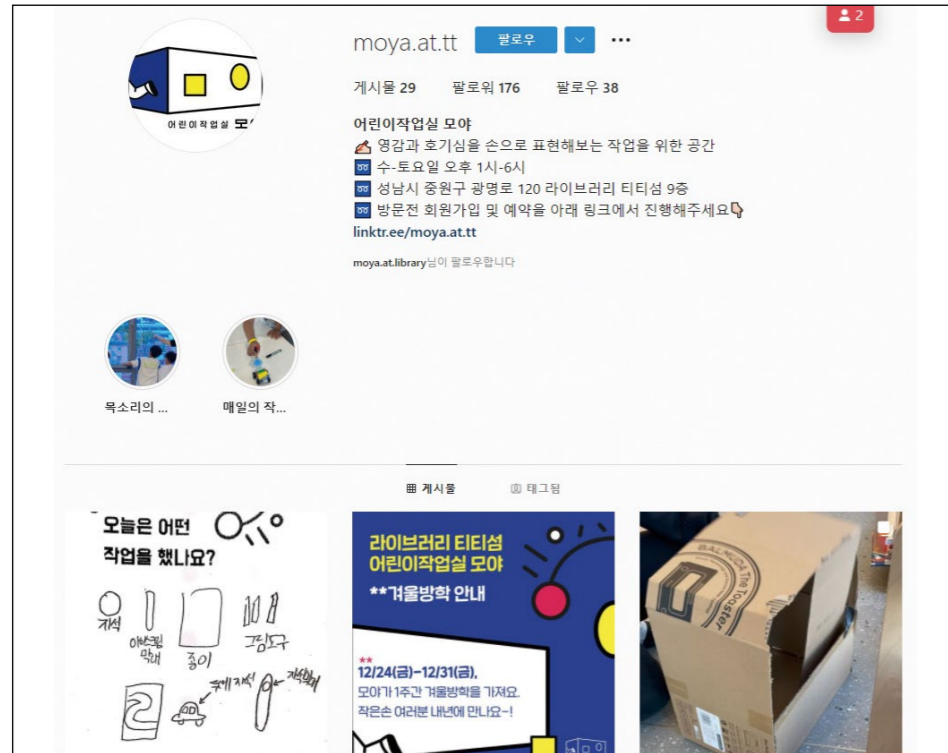


네이버 포스트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시리즈



브런치 [어린이작업실모야의 비밀] 매거진

인스타그램 어린이 작업실 모야 계정(moya.at.library)을 통해서도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청소년 공간에 조성된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모습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어린이 작업실 모야 계정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은 114p 별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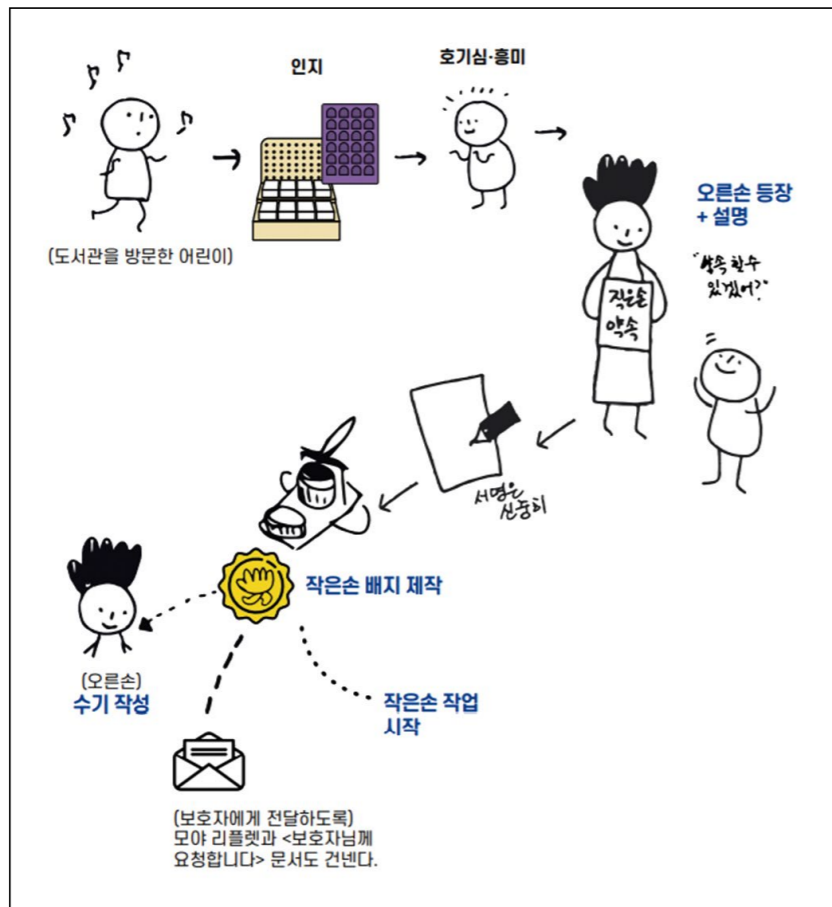
4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선 어떤 일이?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선
어떤 일이?

1. 작은도서관 내부의 풍경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있는 작은도서관 속 풍경을 작은손, 오른손, 뒷집손, 이용자의 시선으로 담았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작은손이 되는 과정

© 2020, 씨프로그래, (주)릴리움,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작은도서관의 작은손

평소와 같이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는 도서관에 생긴 새로운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록달록한 공간에 다른 친구들이 무언가에 집중을 쏟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서 있다가 도서관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안녕~ 나는 오른손이야!, 영빈이도 해볼래?”

“뭐하는 건데요?”

“여기는 도서관에 새로 생긴 어린이 작업실이야. 여기에 있는 재료와 도구로 상상하는 모든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대신 작은손이 되기 위해선 작은손 약속을 해야 해.”

“약속만 하면 돼요? 약속은 뭔데요?”

“작은손 약속은-”

이 과정을 거친 작은손들은 작업실에 들어가 모야 재료와 공간을 체험하며 드디어 자기만의 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도 없고(도서관 운영 마감시간까지) 그날 완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손 약속과 도구테이블을 사용할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는 최소한의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날의 작업을 스스로 끝내면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작업했던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가면 됩니다.

작업물이 완성되었다면 오른손에게 요청해 전시대에 전시할 수도 있고, 완성하지 못했다면 오른손에게 요청해 중간 작업물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져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죠. 다만 오른손이 다른 작은손에게 보여주자고 작업물 사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방문한 작업실에는 다른 어린이들이 만든 작업물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물을 보고 활용할 다른 재료가 떠올랐죠. 새로운 재료를 덧붙여 작업을 진행해보고 처음 써보는 도구도 사용해봅니다. 또 하루는 작업하다가도 그날 작업은 마무리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몇 주간 작업에만 열중했더니 이제 더는 만들게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오른손이 내민 미션카드를 뽑아서 카드에 적인 미션에 따라 만들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그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장난감을 만들어도 되고 저번에 만든 작업물을 업그레이드 해봐도 됩니다.

작은도서관은 집과 학교 주변에 있으므로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마음대로 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친구들과 함께 오거나 혼자라고 해도 마음 편히 올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오른손

오른손은 처음 작업실을 이용하는 작은손에게 작은손 약속과 작업실을 이용하는 규칙에 대해서 안내해

줍니다. 그 후엔 작은손이 된 어린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료와 도구를 탐색하든지 오른손은 작은손의 작업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작은손이 작업을 하다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되도록 작은손 스스로 모야 공간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오른손이 개입하는 상황은 도구 테이블에 있는 도구를 사용할 때 꼭 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도구를 처음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르게 안전한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 다른 작은손의 작업이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작은손이 있을 때 작은손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그래도 안 되면 도서관마다 있는 규칙을 어린이에게 알려주고 배려하며 작업하기를 당부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오른손의 또 다른 역할은 관찰과 촉진입니다. 작은손의 작업에 개입하지 않지만 뚫어져라 작은손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재료와 도구를 쓰는지 긴밀히 관찰합니다. 관찰한 내용으로 그날 작업실을 방문한 어린이들에 대한 일지를 작성합니다.

여러 명의 도서관 활동가가 돌아가며 오른손 활동을 하므로 매주 토크방이나 대면 회의를 통해서 작업실을 이용하는 작은손과 작은손 작업, 작업실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어린이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무슨 요일 어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지, 어떤 재료가 많이 쓰이는지 등을 일지를 보면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이들의 작업을 촉진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합니다. 작은손 게시판에 작은손이 요청한 재료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여러 작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다른 어린이들의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재료가 있다면 작업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고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작업실이 안정적으로 도서관에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하게 된 재료나 잘 쓰이지 않는 재료가 있다면 그달의 재료로 선정해 관련 책과 함께 작업실 한쪽에 전시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활용해 오른손이 작업물을 만들어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교하고 새로운 작업물을 만든 작은손이 작업물을 집에 가져가길 원한다면 다른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일주일만 전시를 부탁하거나 사진·동영상으로 남겨 어린이들이 작업하는 곳 주변에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작은손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오른손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활동가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도 아주 큰 힘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뒷집손

작은손이 도서관을 다녀온 어느 날 도서관에 작업실이 생겼다며 보호자 안내문을 받아왔습니다.

모야 작업실에 대한 설명과 작은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보호자 연락처도 기록한다며 안내 문자가 왔었는데, 작은손이 가져온 안내문을 읽으니 이해가 갑니다. 평소 잘 아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공간이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큰 걱정은 들지 않습니다.

모야라는 공간도 볼 겸 이번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언제 이런 공간이 생긴 건지, 도서관 한편에 알록달록한 가구들과 다양한 재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니, 도서관 선생님이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어린이들이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되도록 몰래몰래 관찰하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도서관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여기는 선생님이 아닌 오른손으로 칭하고 작업실에서만큼은 어린이들과 서로 별명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일회성의 수업이나 행사 같은 개념이 아닌, 작은도서관과 함께 일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더 신기합니다. 누가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오른손에게 물어보니, 어린이 작업실 모야 이야기가 적힌 여러 플랫폼을 알려 주셨습니다. 작은손이 모야 작업실에서 정신없이 만드는 동안 저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봐야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도서관을 오가면서 모야 작업실을 조성한다고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을 가보니 어린이들이 푹푹뚫뚫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도서관은 언제나 북적거렸지만,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공간이 도서관 안에 있는 건 새롭기도 합니다. SNS를 보다가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없는 시간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모야 작업실을 오픈한다는 홍보를 봤습니다. 그날 다른 일정도 없어서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도서관 선생님 말씀으로는 작은손이 작업실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다 같이 작은손 약속을 읽고 준비된 재료 중에 원하는 재료를 가져와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집중하고 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명씩 자기가 만든 작업물을 설명하다 보니 이 작업실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공간일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책 대출과 반납만 하느라 잠깐 오고 가며 본 게 전부였는데, 이젠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을 들릴 때는 집에 있는 휴지심을 모아서 가져와야겠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있는 작은도서관 속 풍경을 작은손, 오른손, 이용자의 시선으로 짧게 담아 봤습니다. 작업실이 생긴 작은도서관의 모습이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글에는 전부 담겨 있지 않지만 작은손, 오른손, 뒷집손, 이용자가 경험하는 더 다채로운 생각과 작용들이 어린이 작업실 모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모야로 살아남기, 살아가기

2020년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의 배경에는 각각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작업실 운영, 작은손의 작업 촉진, 뒷집손과의 소통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이 시도했던 다양한 도전들을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작업실 운영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도서관이 여는 날, 도서관이 열리는 시간과 함께 열리고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도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스스로 와서 마음껏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도서관도 문을 닫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한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실 이용시간과 이용인원을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함께 고려하여 시기마다 다르게 결정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작업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밴드, 전화 등 다양한 예약 방법을 시도하면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작업실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약방식은 보호자가 예약을 해줘야 작업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이 원할 때 스스로 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모야의 정체성이 약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데 보호자가 보내서 왔다는 어린이들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작업실과 작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직접 예약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했고, 비대면으로 예약하는 기존의 방식과 함께 현장에 어린이들이 와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예약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예약하지 않은 어린이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참여 인원을 한 명씩 비워두는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원래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못해도 각각의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양하게 시도해본 도전들이었습니다.

예약방식의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 유행이 너무 심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서관 문

을 닫거나 예약 대출·반납만 진행하고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운영을 멈춰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야 공간을 못 오는 대신, 집에서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작은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 작업실에 있는 재료를 직접 와서 고르고 담아가 집에서 만들기를 진행하고 작업물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집에서 하는 모야’를 시도했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모야’라는 작업 공간에서 작은손들이 독립적인 작업환경을 보장받았듯이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가능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문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에서 하는 모야를 시도했던 도서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린이들의 작업과 작업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과 학교, 학원과는 다른 제3의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단순히 재료와 도구를 제공해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작업자로서 존중받는 독립적인 공간 자체로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지금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나아질 때면 어린이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요일을 골라 기존 예약제 방식에서 전면 오픈 방식으로도 시도하고 예약을 받더라도 1~2시간의 짧은 시간 제약 없이 하룻동안 어린이들을 모집해 도서관이 문 닫을 때까지 작업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의 핵심은 작은손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확장하는 작은손의 작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시도에 따른 작은손들의 작업물과 작업방식에 변화를 관찰하고 작은손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관찰합니다. 더 다양하고 깊은 작업과정의 변화를 척도로 작은도서관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작은손 작업에 불 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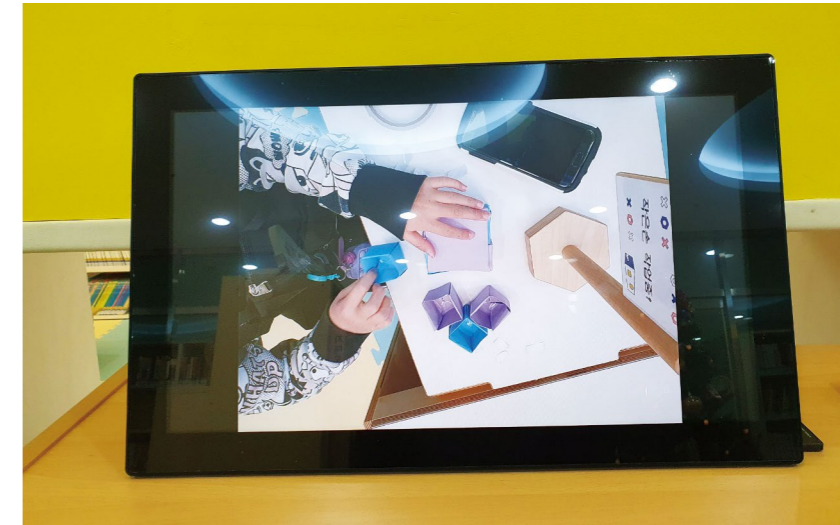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다양한 작은도서관과 다양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들의 작업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원할 때 하고 싶은 만큼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던, 지금부터는 작업실 안에서 어린이들의 작업을 확장하고 활성화하는 여러 시도를 공유합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비교적 ‘작은’ 공간에 재료·도구 200여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손들이 작업을 끝낸 후 작은손 나름대로 정리하지만 모야 재료바와 작업실 여기저기가 어질러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감을 주재료로 선택하는 날엔, 작은손이 떠나고 난 후 오른손의 손길이 더 많이 갑니다. 당연한 일 같지만 재료바와 작업실이 깨끗이 유지되고 재료와 도구가 정갈하게 정리되어 제 위치에 있는 것은 오른손의 큰 노력이 깃든 모습입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재료바는 작은손의 작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야 작업실이 깨끗하면 재료와 도구가 더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재료와 도구의 사용으로 연결됩니다. 작은도서관의 오른손이 깨끗하게

작업실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작은손 작업을 활성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작은도서관의 작업실 안에서 열심히 만든 작업물을 가지고 도서관 밖에서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어린이들의 작업을 활성화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도서관 바로 앞 공원이 있는 도서관도 있고 자연이 앞마당인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심 안에 있더라도 가까운 공원과 마당이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이 만든 작업물을 가지고 밖에서 사용하고 놀면서 새롭게 보완할 점을 찾아 다시 작업실로 들어와 다른 재료를 덧붙이면서 작업물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도서관이 위치한 환경에 따라 어린이들은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작업물을 만들기도 하고 밖에서 친구들과 가지고 놀 장난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다양한 작업의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업실 내부에도 어린이들의 작업을 촉진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른 작은손이 작업한 작업물을 보면서 따라서 작업을 하거나 다른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다른 작은손이 잘 안쓰는 재료를 사용한 작업물, 기존 재료와 도구를 새롭게 활용한 작업물, 정교하게 만든 작업물 등을 작업실 내부에 전시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또는 시리즈로 작업을 하는 어린이들과 작업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전시존을 만들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스스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작업물은 집으로 들고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른손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디지털 액자를 통해 작업실에 전시합니다. 처음 작업실을 방문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작은손, 이미 많은 작업을 해서 작업의 정체를 겪고 있는 작은손에게도 다양한 작품 사진과 동영상이 작업에 영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작은도서관 중에는 작은손 별로 작업물 사진을 모아서 작은손 별 작업 과정을 기록하여 관찰하기도 하고 실제로 인화하여 작업실 곳곳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는 작업을 시작한 동기와 작업물 사진을 같이 전시하여 어린이들의 작업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액자

처음 작업실을 방문했거나 정체를 겪고 있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작은손에게 작업물 전시와 사진 전시를 통해서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션을 주는 방법을 적용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작업실을 온 작은손들 중에는 쉽게 작업을 시작하는 작은손도 있지만, 막상 정해진 것이 없을 때 어떤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작은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재료와 도구, 작업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오른손이 다른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탐색 과정을 거쳤음에도 작업의 시작을 막막해하는 작은손에게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작업물을 예시로 제안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스로 이러한 시도를 하는 작은도서관과 함께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아 사업 추진단도 작업실 조성만으로 어린이 작업실 지원을 끝내지 않고 다양한 작업실 운영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음 오거나 정체를 겪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작은손에게 적용하는 '웰컴퀘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웰컴퀘스트'는 오른손이 내민 3가지 카드 중 작은손이 직접 하나를 뽑아 카드에 적힌 미션 만들기를 수행하는 미션카드입니다. 작은손이 쉽고 재미있게 작업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각각 한 곳에서 시범 운영을 하며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 현재 모든 도서관에게 전달된 상황입니다. 자율성이 큰 공간이라는 특성상 자칫하면 정체가 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작은도서관 오른손과 어린이 작업실 모아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사업 추진단 역시 작은손들의 다양한 작업 확장과 새로운 시도를 촉진하는 여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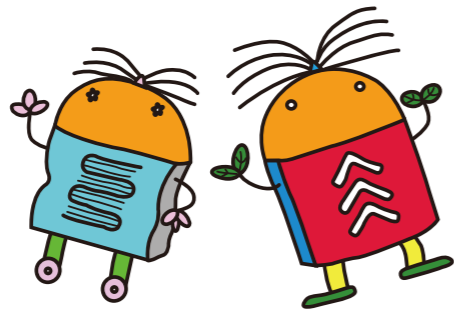


웰컴퀘스트를 활용해 만든 작품물

SNS로 적극적인 소통과 메시지 전달을 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직접 어른들이 작은손으로 작업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연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작업실에 오지 않는 시간에 맞춰 미리 작업실을 체험해볼 어른들은 모집해서 그때만큼은 어른들이 작은손이 되어 작업실을 이용합니다. 작은손처럼 작은손 약속을 읽고 동의한 후 준비된 재료 중에서 스스로 결정해 만들기를 합니다. 끝나고 난 후에는 자기가 만든 작업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야 작업실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체험해본 어른들은 동네의 다른 어른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야 작업실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뒷집손이 되기도 하고 작은도서관의 활동가나 모야의 오른손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평소 어린이들의 작업에서는 잘 보지 못하던 재료나 도구를 쓴 작업물을 새롭게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물을 보고 작은손들은 안 쓰던 재료와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듯한 이 시도도 작은도서관 오른손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라이브를 통해 다른 도서관들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각자 도서관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형해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뒷집손과의 소통은 작업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밀접하게 맞물리는 만큼 2022년에는 더 다양한 작은도서관들의 시도가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단도 2022년에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뒷집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뒷집손과 소통하기

뒷집손은 어린이 작업실 모야 안에 있지는 않지만 작업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야 작업실과 작은손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는 뒷집손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작업실 조성 후 지금까지는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작은도서관 내에 잘 정착되고 작은손이 작업실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 뒷집손들에게는 작업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기를 요청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사업으로써 마무리되고 난 후에도 도서관에서 일상으로 지속해서 존재하려면 뒷집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작은도서관들은 어린이들이 처음 작은손이 되었을 때 보호자에게 문자 또는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모야 작업실에 대한 소통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모야를 일종의 ‘수업’으로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도서관을 찾는 뒷집손에게 모야에 대해 열렬히 설명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활동이 올라오는 도서관 SNS에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 대한 포스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모야 ‘수업’이라고 인식하는 뒷집손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홍보와 오른손의 설명, 작은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점차 모야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뒷집손도 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뒷집손들이 모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해도 다양한 깊이로 작업실을 지지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SNS에서 본 안내대로 재활용 재료를 다듬어 모야서 도서관에 전달하는 뒷집손, 다른 주변 보호자에게도 입소문 내는 뒷집손, 오른손 활동을 자원하는 뒷집손, 도서관과 모야 작업실의 취지에 공감해 후원하는 뒷집손 등 다양한 지지가 가능하도록 앞으로 더 홍보하고 알릴 예정입니다.



5

**중반까지 달려온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작은도서관들의 생각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을 운영 중인 10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 중간평가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중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 중인 작은도서관에게 모야 사업이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유의미한지’, ‘사업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작업실을 지속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은 도서관 운영자와 함께 논의하여 같이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 형태의 실험이자, 작은도서관 안에 어린이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함께 일상으로 공존하는 것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업 과정을 정리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추진단도,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조성과 관리를 맡고 있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도 현재 작은도서관의 어린이 작업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해서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작은도서관에 유의미하다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작은도서관과 작업실을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진행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중간평가 설문 조사’ 결과와 2021년 하반기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들었던 ‘작은도서관이 말하는 작은도서관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의미’를 전합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중간평가 설문조사

1. 설문 기간 : 2021.07.23. ~ 2021.08.02.

2. 설문 대상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진행 작은도서관 운영자, 대표 오른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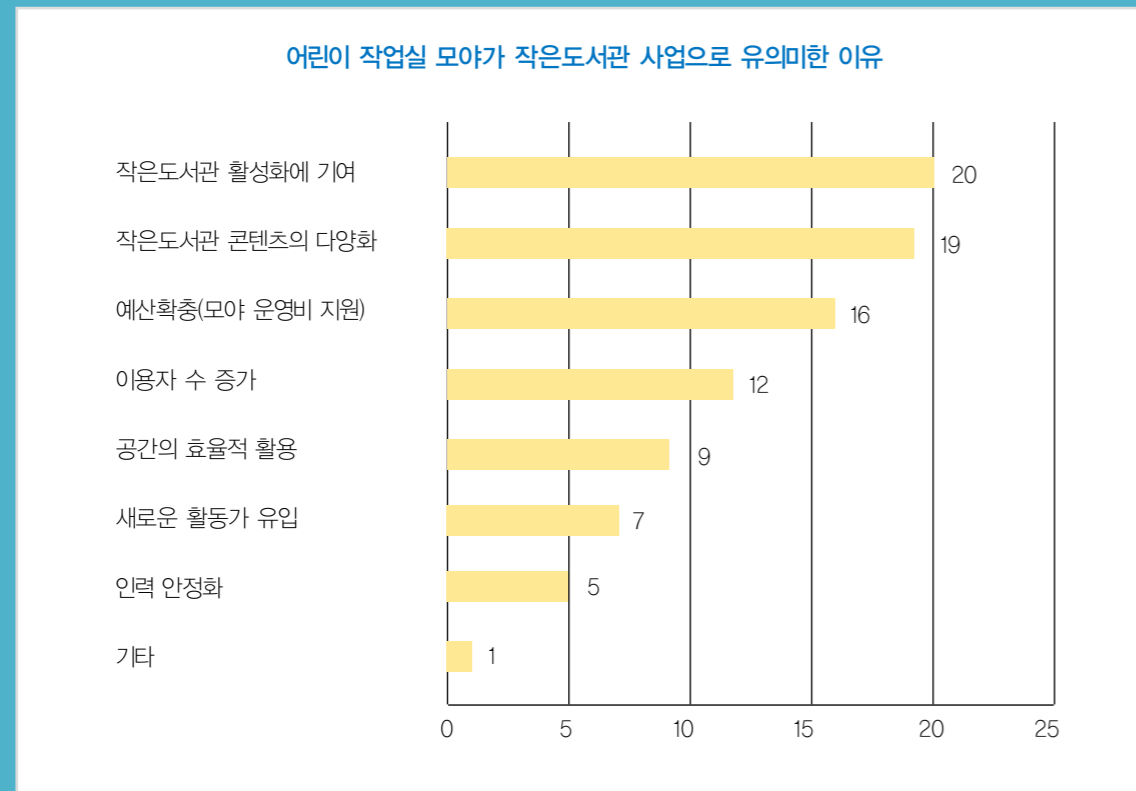
3. 설문 목적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중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 중인 작은도서관에게 모야 사업이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유의미한지, 사업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지속하고자 하는지 의견을 듣는다.

4. 설문 결과

*10개 작은도서관 모두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유의미하다고 선택해, 유의미/무의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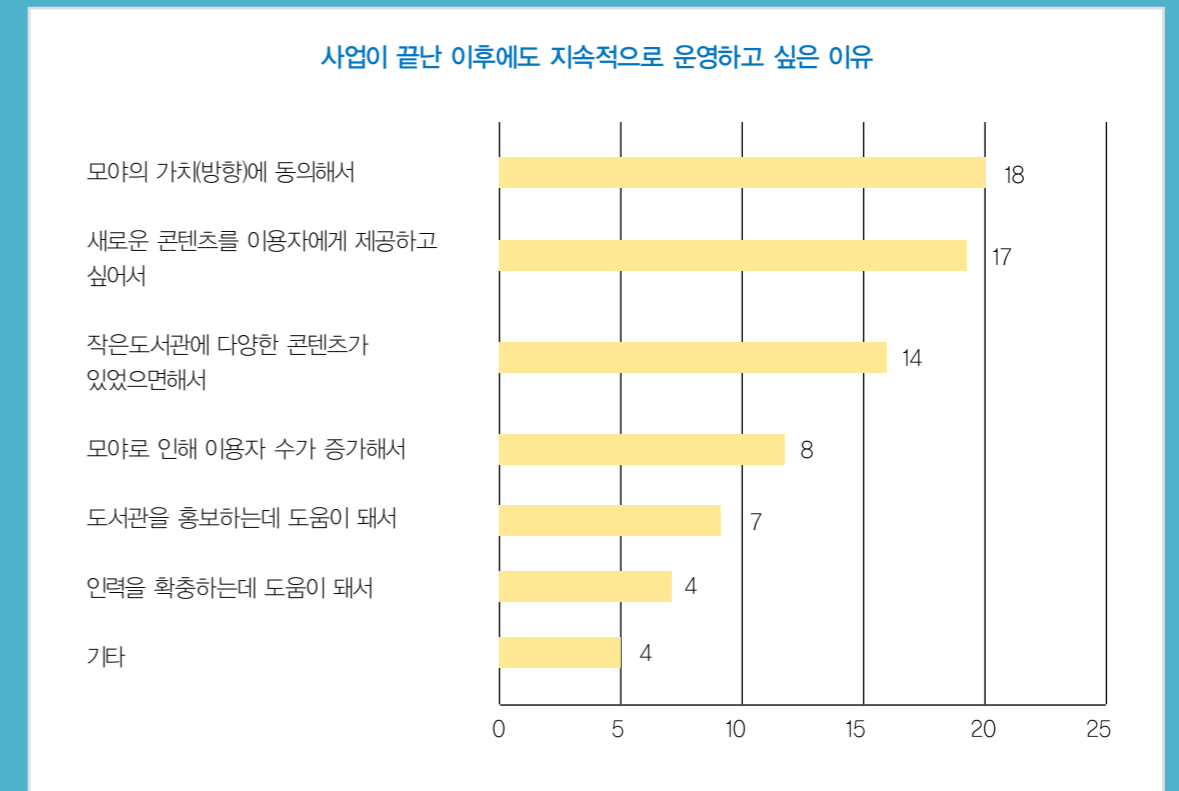
*10개 작은도서관 모두 사업이 끝난 후 작업실을 지속하겠다고 선택해, 지속한다/지속하지 않는다에 대한 답변은 생략함.

1)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복수 응답)



- 기타 : 성장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어린이들의 자발적 문화발전 기여

2)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복수 응답)



- 기타 :

- 모야가 지역 어린이 놀이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됨
- 만들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흥미로워서
- 모야 재료바로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지방보조금으로 재료비, 인건비가 가능할 듯)
- 사업이 끝난 후 지속하고 싶은 바람과 의지는 있지만 운영비 지원이 없으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음

3) 현재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운영에 있어 가장 힘든 점

*도서관들의 실제 답변을 키워드로 선정해 정리함.

#코로나19, 방역

- 코로나19
- 방역상황
- 코로나19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점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지
- 코로나19로 운영이 불확실성
- 코로나19로 원래 모야 취지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
-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인한 모야 운영의 불안정성
- 코로나19 인해 불안한 상태로 운영함. 대면 홍보를 하는 것도 힘들.
- 코로나19로 운영이 제한적이라 어린이들과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하고 싶으나 기존 작은손들의 방문과 신규 작은손들 유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외 부분은 작은손과 오른손이 부딪히면서 극복하면 되는 거라 괜찮습니다.
-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보니 개인위생이나 실내 청결은 마음을 많이 쓰는데 전체적으로 내부 소독에 대한 점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린이 작은손, 뒷집손과 소통

- 7세 이용자와 부모의 분리, 오른손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보호자
- 7세 작은손 참여시 보호자들이 개입하고 싶어하는 점과 작은손들 가운데 오른손 의존도가 높은 경우
- 시대적 배경면에서 이색적인 취지의 프로그램이기에 대대적인 공식화보다 소소하게 작업하는 부분에서 참여자들과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본질적인 이해의 거름에 시간차 속도가 필요하다.

#작은손 작업 확장

- 자주 오는 작은손, 새로 오더라도 단순 만들기의 경우 어떻게 더 확장시키나.
- 어린이디어와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의 창작을 유도하는 능력
-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만들기에 대한 접근을 유도하는 게 어려웠다.

#실무적 부담

- 오른손의 역할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모니터링을 잘 해야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고 어린이들과 잘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힘들어요.)
- 인력확충
- 실무적 부담(자료관리, 보고서작성, SNS공유, 회계관리, 교육및 소통 등)이 은근히 많음.

#홍보

- 사립작은도서관으로써의 홍보 한계
- 방과 후나 학원 등 어린이들이 모야를 이용할 시간이 없음(방학 중 이용자는 증가함) → 잠시 들러서 이용하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님, 초등 저학년까지는 부모가 어린이를 혼자 보내지 않음.

#작은도서관과 모야 조화

-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모야 작업실의 상관관계와 자리매김

#쓰레기 문제

- 운영자 혹은 오른손으로서 작은손들의 재료 사용과 자율성에 대한 개입이 늘고 민입니다. 도서관 다른 교육과 활동에서는 늘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데, 사실 모야에서는 자유롭게 재료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다 보니 쓰다 버리는 재료들을 보면서 고민이 쌓입니다.

5. 설문 결과 요약

- 사업을 시행 중인 10개 도서관의 운영자와 대표 오른손 모두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가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의미있는 이유로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작은도서관 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점, 도서관 예산이 확충된다는 점을 가장 크게 꼽았다.
- 사업을 시행 중인 10개 도서관의 운영자와 대표 오른손 모두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끝난 후에도 작업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모야의 가치에 동의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해서,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등을 꼽았다.

- 위의 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모야 사업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작은도서관 콘텐츠 다양화, 예산확충 등의 이유로 작은도서관의 유의미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현재 모야 사업을 진행 중인 10개 도서관은 모야 가치에 동의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야 작업실을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업 중반기 이후부터는 현재 작업실 운영의 어려운 점과 모야를 지속하고자 하는데 어려운 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을 요약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점, 작은손의 작업을 확장하는 점, 뒷집손과의 적절한 소통, 실무적부담, 홍보, 도서관과 모야의 조화, 쓰레기 발생 등이 있다.

이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안정적인 운영의 어려움은 사업초반과 비교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 도서관 자체적으로도 코로나19 상황과 단계에 맞는 자체적인 운영수칙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점이 필요하다.

작은손의 작업을 확장하는 점은 씨프로그래밍과 릴리큐이 퀘스트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어 다양한 콘텐츠의 도입으로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업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전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뒷집손과의 적절한 소통은 홍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앞으로 살롱이나 워크숍 등을 진행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2년 주요한 작업실 지원 키워드로 생각되는 작업실의 지속적인운영과도 맞물리는 부분으로 지켜보면서 가능한 지원 방법을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오른손의 실무적부담은 사업의 특성상 실험적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부분이 많고 동시에 모야 작업실 운영자의 의견을 묻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많은 것과 맞물린다. 오른손의 실무적 부담이 있는 점을 상기하며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 일정 조율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과 모야의 조화 및 쓰레기 발생은 지속적으로 도서관과 사업 운영 주체들이 고민하고 찾아가야 하는 지점으로 생각된다.

작은도서관이 말하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의미

2021년 하반기 현장모니터링에서 어린이 작업실을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발췌·편집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생각하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도서관을 몰랐던 분들이 새로 오고 왔어요. 어린이들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 관심 없는 어린이들도 도서관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좋아요.

코로나19 시기에 모야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침체 될 수 있는 시기에 도서관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어린이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도서관에 볼 일이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들고 싶거나 하는 다른 이유를 가진 친구들이 도서관을 볼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저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노는 공간에 책이 있는 것만으로도, 책이 낯설지 않고 어려운 위압감이 없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의 삶의 과정에서 언젠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서관이 모야를 통해서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야라는 공간은 '된다'를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실패조차 '되는' 공간이라고요. 개인적으로 도서관 밖에서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수업이든 보호자들이 어린이들만 데려들지 같이 있는 수업은 없어요. 그런데 모야는 도서관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엄마가 한 공간에 머물면서 각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중반까지
달려온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2.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사업 추진 단체들의 생각

처음 모야를 시작했을 때 우리 작은도서관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걸 작업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야를 운영하기 전에도 도서관은 다양한 노작활동과 더불어 가족 단위로 와서 편하게 관계 맺는 공간이었어요. 이제는 거기에 더해 다양한 재료와 도구, 작업을 촉진하는 오르손이 있는 작업 공간으로 확장되어서 좋아요.

모야를 운영하기 전에도 도서관에서는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모야가 생기면서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이 직접 눈으로 보이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도 바뀐 것 같아요. 작업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해도 학원은 한정된 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하는데, 모야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간 언제나 와서 이어서 작업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모야는 도서관에 활력을 줘요. 모야 덕분에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책도 재밌기는 하지만 도서관 안에 이런 새로운 만들기 공간이 있는 게 큰 활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의 역할이 확장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과의 친밀감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어린이들과 대화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어요. 우리 도서관은 모야를 운영하기 전에도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지향했었어요. 어린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책을 대어하는 것보다 더 눈중하게 생각했는데, 모야로 더 확장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린이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필요죠. 선택은 어린이들의 자유지만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이자 모야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사업 중간평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 대한 이야기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직접 듣고 나니,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의 추진단들은 현재의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작은도서관뿐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청소년공간에도 꾸준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른 공간 중 '작은도서관'에 위치한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 대한 의미와 그간 작은도서관에 작업실을 조성하고 지원 해오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지, 앞으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 공간이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조현정 팀장의 '도서관이 어린이작업실 모야를 만나면' 과 씨프로그래밍 신혜미 매니저의 '작은도서관 모야의 의미' 를 통해 전합니다.



© 2020. 씨프로그래밍, (주)릴리쿰, (재)도서문화재단 씨앗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도서관’이 ‘어린이작업실 모야’를 만나면

(재)도서관문화재단씨앗 조현정

우리의 시작과 질문들

도서관문화재단씨앗은 2007년 설립된 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이 그 첫 출발입니다.

2008년 춘천의 어느 골목길에 어린이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담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고, 동네 어린이들의 휴식과 놀이의 공간으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 책,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와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란 무엇일까?
좋은 책들만 많이 있으면 되는 것일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일까?
도서관이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러던 중 이문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어린이작업실 <이문238>의 사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재료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자기만의 작업을 스스로 결정하며 저마다 다양한 작업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아주 신선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을 오가며 짬이 날 때마다 학교 앞에 있는 작업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과 똑같이 말이죠.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경험, 세상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서 더 좋은 책들을 고르고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선택지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대로’ ‘자발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탐색과 표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실이 도서관 안에 있다면..”

왜 작은도서관이었을까요?

누구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우리 생활 반경 안에서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항상 어린이서비스를 중심에 두고 활동하며, 어린이를 환대하고 어린이들의 활동을 지지할 어른이 있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이런 곳이면 우리 아이들이 ‘일상속 가까이에서’ ‘자신의 시간과 속도대로’ ‘책과 더불어 작업의 경험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저희가 만난 작은도서관의 모습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필기구 및 간단한 만들기 재료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다양한 독서활동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작은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과 함께 생각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콘텐츠의 하나로 ‘작업’이라는 활동들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이런 활동들까지도 언제든지 마음껏 해도 괜찮아!!”라고 말걸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모야를 만들며

사실 작은도서관은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운영인력과 예산’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책이 아닌 새로운 콘텐츠가 자리할 공간을 마련해주실 수 있는지,

독서의 경험을 넘어서 다양한 탐색과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도서관이 역할할 수 있는지,

또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는 중요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린이작업실 모야>가 하나의 콘텐츠로 도서관 속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도서관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모야〉가 하나의 일이 아닌 ‘도서관의 활력’이 되고,

이용자도 도서관을 생각할 때 ‘즐거운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떠올릴 수 있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전국에는 7000여개의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 실험은 10곳의 도서관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야가 도서관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도서관 속에서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까요?

책을 읽다 얻은 영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적이고 가능성을 가진 콘텐츠이면 좋겠습니다.

책과 모야를 넘나들며 도서관을 찾는 이유가 늘어나고 나만의 도서관 속 이야기도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역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 모야의 의미

씨프로그래밍 신혜미

‘작은도서관’에 어린이작업실을 조성한 이유

– 어린이를 위한 ‘제3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씨프로그래밍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제3의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제3의 공간이 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3의 공간은 제1의 공간인 집, 제2의 공간인 학교가 아닌 공간으로 1) 일상에서 언제든지 2) 누구나 갈 수 있으면서 3) 다양한 영감과 자극을 접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1) “일상에서 언제든지”이라는 조건은 어린이의 생활 반경 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어린이들이 자주, 편안하게 공간에 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2) “누구나 갈수 있는”의 의미는 경제적 여건,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면서 어린이들이 심리적으로도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환대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3) “다양한 영감과 자극을 접하며,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곳”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거나 해야 할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닌,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경험을 선택할 수 있으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영감과 자극의 재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1), 2), 3)의 조건에 맞는 공간을 찾아보니 작은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갈수 있는 동네에 위치해 있고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자주 드나들 수 있으면서, 어린이를 늘 환대하는 운영자가 있고, 책이라는 콘텐츠가(어린이들이 읽기만 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영감과 자극의 재료가 되는 곳이었습니. 작은도서관은 1), 2)의 조건은 가뿐히 충족하는 곳이었고, 3)의 조건은 탐색의 영역인 독서라는 활동에 더하여 ‘작업’이라는 표현의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선택지를 제시하는 공공 공간이 될 수 있을거라 확신했습니다.

– 편안한 공간이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싶었던 작은도서관을 만났습니다.

작은도서관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가보니 전체적으로 도서관 공간이 여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독

후활동, 다양한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와 손으로 만들고 표현했던 시간들의 재료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텃밭을 가꾸시기도 하고, 공간의 가구들은 직접 만드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며 이용자를 만나는 시간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이미 작업실이 되기 위해 예열을 마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이 작업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조력해주는 어른의 존재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다녀보면서 이곳에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때는 도서관 운영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 솔직히 아이들이 동네에서 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책 보러 오기도 하고, 책 안 봐도 편하게 문제집 풀다갈 수 있는 곳, 그냥 있다가 갈 수 있는 곳, 동네엔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6년 만에 나타난 동네 아이가 오랜만에 둘러보고는 아직 여기 도서관이 있구나 하며 똑같다고 안심하고 감동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운영자

많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은 동네에 어린이를 환대하는, 어린이에게 편안한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공공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 아닌 어린이들이 편안히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도서관을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들락거리고, 책도 가끔 보지만 공간에 머물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경험을 할지 선택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이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은도서관 운영자

어린이들을 환대하면서 나아가 어린이 이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은 운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어린이작업실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가도 잘 운영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모야를 조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점

- 넘나들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길 바랐습니다

어린이작업실 ‘모야’에선 어린이들이 ‘작업’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재미있게 진입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공간을 이용하는 태도를 ‘전환’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공을 들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던 수동적 이용자에서 스스로 작업을 시작하는 능동적 작업자가 될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자료실과 공간을 분리하여 아지트같은 공간을 조성하기도 하고, 작업실로 진입하기까지 별도의 게이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료실과 조금은 다른 세계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곳곳에 전환 요소들을

심어 둡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에서는 작업실이라는 낯선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작업실 가구들은 최대한 유지하되 동시에 작업실 공간은 분리하지 않고 기존의 작은도서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하였습니다. 전환의 요소로 공간을 분리하여 보여주기 보다는 고보조명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환’을 가볍게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이라는 연결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모야 안에서 작업이 어렵다면 다른 테이블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깃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서가에서 책을 꺼내 들고,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다가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도 모야에서의 경험들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모야에 처음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되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는 모야에서의 작업경험 또한 도서관 전체에서 제시하는 독서 경험과 동등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이용자가 책을 읽는 경험과 작업 경험을 넘나드는 모습이 공간 전반에서 발견되길 바랐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모야가 어떻게 운영되기를 상상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지 - 새로운 도서관 모델로 인식되길 바랍니다.

많은 공공 도서관들이 도서관의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용자들의 일상에 더 밀접하게 다가가야 하며, 읽는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필요한 정보는 집에서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기에 도서관은 조금은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면서 우연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공간에 더 머물 이유가 있는 콘텐츠를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이 모야를 통해 어린이 이용자에게 도서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잘 읽지 않는 어린이들이 공간에 더 머물게 되고, 그 도서관의 주체적인 이용자가 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들은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는 어린이 이용자들을 보며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제시할 경험들을 기획해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체적인 이용자와 늘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운영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모델이 앞으로 도서관의 모습을 재정의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서관은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공공의 인프라입니다. 이젠 정보의 격차를 넘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문화 자본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질의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기회를 만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문화

자본의 격차는 앞으로 더 큰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예술 및 창작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 동네단위에서 기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것처럼 어린이작업실 모야까지 더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탐색하고 시도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이어가며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일을 해나가실’ 운영자분들에게

- 익숙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일, 지금처럼 계속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낯설고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자칫 공간의 활기가 떨어지거나 어린이들이 더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경험을 이어가도록 어린이들의 작업을 관찰하고 작업물을 기반으로 대화하면서 관심사를 발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나 환경에 대해 계속 고민해주시고, 동료들과 대화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며 크고 작은 낯선 시도를 모야를 통해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자분들의 지속적인 시도들로 또 아이들은 다음 경험으로 이어갈 단서를 찾을 것이고, 도서관의 경험이 계속 풍성해질거라 생각합니다.

-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운영자분들의 ‘수고스러움’이 더 빛을 바라고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도서관에 머물며 처음엔 어려웠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예약을 받으면 몇분만에 예약이 꽂차버리기도 합니다. 동네 어린이들이게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한번 오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중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조금이라도 작업하다가 학원을 마치면 마무리하러 도서관에 다시 들르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린이들의 작업과정을 존중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자주 찾아와 오랜 시간 공간에 머물며 편안하게, 때론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오신 운영자분들 덕분입니다. 기존에 도서관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환경을 만들고 제안하면서 기존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자진해서 하고 있는 운영자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서관의 모델을 만드는 일을 현장에서 스스로 나름의 실험을 이어가고 계신 운영자분들이 스스로를 더 자랑스러워하시고 대단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 실험의 결과들을 더 많이 알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생각

자료집을 마무리하는 글로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중반까지 달려온 지금,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보는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이 아닌 일상으로의 전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은주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그동안 작은도서관에서 행해져 왔던 기본 일상활동인 노작의 확대 버전이자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유의미성 여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이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고민하게 하는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시작 시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와 더불어 시작된 모야의 시작은 그동안 고군분투하며 작은도서관 현장을 지켜온 작은도서관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고민은 작은도서관 속 작업실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협회가 작은도서관들과 함께 해온 사업의 방식과도 좀 달랐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실험에 대한 협회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 작은도서관의 유연한 전환

작은도서관의에서 책은 가장 소중한 최우선적인 자료입니다. 모든 사업에 책이 중심임은 달라지지 않았 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는 책중심에서 책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도서관 을 누리는 어린이들- 즉, 작은손에 사업의 중심을 둡니다. ‘정말 책을 좋아해서 작은도서관에 오는 아 이들도 있겠지만, 그 수는 적다.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 만들기 자체가 즐거운 아이들이 와서 도서관을 알게 되고, 책과 친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을 모야를 하면서 깨달았다.’라는 한 관장님의 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야를 통해 작은도서관은 책에서 작업으로, 작업에서 책 으로 유연한 전환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작은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로서의 정체성 확인

“선생님, 이면지 있어요? 색연필있어요?” 작은도서관은 매일매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메이커 스페 이스입니다. 작은손들의 작품이 곳곳에 전시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작은도서관형 ‘메이커 스페이스’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도서관들은 트 윈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등 다양한 시도로 업그레이드된 도서관 문화를 선보입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들도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도이지만, 그걸 실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 린이작업실 모야는 공간의 크기를 넘어서 콘텐츠와 사람이 만들어가는 메이커 스페이스의 의미를 확인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간이 작아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 사업주체와 작은도서관이 함께 만들어온 실험

그동안 협회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과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은 일정금액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정산서류를 받는 것이었다면, 모야는 다른 방식이 요구 됐습니다. 구글 문서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작은손의 태도, 활 동 등에 관한 데이터 수집, 일지업로드 등이 요구됐고, 버전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아카이빙 방식, sns 라이브 등 다양한 시도도 진행됐습니다. 협회 역시 진행에 따라 바쁘게 움직여야했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씨 프로그램, 도서관문화재단 씨앗, 릴리쿰이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수시 로 변동되고, 수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린이작업실은 작은도서관형, 어린이도서관형, 공립도서관형으 로 진행됩니다. 작은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 그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실험이 만들어낸 결과는 작은도서관의 확장, 홍보, 업무능력향상, 활 성화로 이어졌다는 것이 모야 작은도서관들이 말하는 결과입니다.

4.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확신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에는 작은도서관을 잘 알고, 모야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오른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오른손은 작은도서관에서 이미 자원활동을 해오던 진짜 작은도서관 활동가들 입니다.

“해오던 일이에요.그래도 어렵네요.”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작은손을 존중하는 과정,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의 활동으로 모야를 이 어가는 과정이 쉽지않아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작은도서관 사람 이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 콘텐츠로서의 유의미성을 실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운영비 안에 인건비를 책정했고, 오른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전문성을 향상을 위 한 살롱 진행, 다양한 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서 오른손을 지원했습니다. 오른손에 대한 지원은 작은손에 대한 지원이자 뒷집손에 대한 지원이기도 합니다. 열정하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작 은 도서관 사람들은 새로운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작은도서관 현장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들은 서로에 대한 응원과 연대를 통해 네트워크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가는 가 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을 때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안정화됨을 확인하는 과 정이기도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가 사업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야를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오른손-작은손-뒷집손이 모야를 일상으로 함께 만들어가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후에도 모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하는 것 은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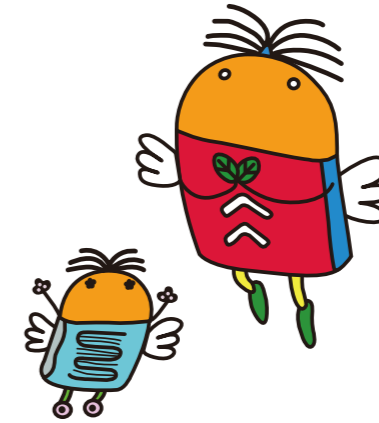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멈췄던 작은도서관의 일상이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 모야’로 인해 숨을 쉴 수 있었 고 활력이 되었다는 말처럼, 변화하는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모야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 시도가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유지되고 지속적인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가야할지를 작은도서관 현장과 함께 고민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1. 어린이 작업실 모야 채널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게시판
- 네이버 포스트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시리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유튜브 채널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영상
- 페이스북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페이지
- 인스타그램 어린이 작업실 모야 [moya.at.library] 계정
- 네이버 브런치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비밀] 매거진
- 유튜브 [RELIQUUM릴리쿰] 채널

2.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운영 도서관

No	도서관명(가나다순)	전화번호	주 소
1	그나라어린이도서관	053-311-1324	대구 북구 대천로 85(동천동), 5층 그나라어린이도서관
2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070-8821-5234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359 (비산동)
3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	055-753-9922	경상남도 진주시 초창로 55 2층 마하어린이도서관
4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044-868-6933	세종시 달빛로 211(아름동), 푸른작은도서관(관리사무소 옆)
5	산들마을푸른숲 작은도서관	031-753-643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51 (여수동,산들마을)
6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02-2272-2011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50가길 45(구의동) 2층
7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052-288-3709	울산시 북구 염포로 521-1(양정동) 1층
8	여우네도서관	041-956-2020	충남 서천군 마서면 신장로 233-27
9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02-892-789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922-1(시흥동)
10	작은도서관 웃는책	02-478-8600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42길 60(천호동)
11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	02-428-4686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61길 104(고덕동) 2층
12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063-252-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2길 21 (롯데마트 송천점 별관 주차장 2층)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2 기금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책연구1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 작은도서관 속 어린이 작업실 모야 사업 중간보고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지은이 이은주, 정에서 외 3인
발행인 백영숙
디자인·제작 디자인센터 산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7, 2층
전화 02-336-5933
팩스 02-388-5922
이메일 kidlib@hanmail.net
홈페이지 smalllib.org

비매품

※ 이 책은 (재)도서관문화재단 씨앗에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시즌2 기금' 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